

일제하 · 미군정기 韓昇寅의 政治活動과 經濟認識

吳 鎭 錫

본고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의 明治大學과 미국의 풀러튼,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 등에서 修學하였고, 미국유학중에는 興士團에서 그리고 귀국해서는 同友會에서 활약하였으며, 協成實業學校 教師, 和信百貨店 社員를 거쳐, 解放後에는 美軍政의 商務部 商務局長에 발탁되어 남한의 資本主義 國家建設에 일조했던 韓昇寅의 정치활동과 경제인식의 형성과정, 내용 등을 검토한 글이다. 그동안 이 시기의 經濟學者, 經濟評論家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사상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社會主義 經濟學者들과 이른바 中間派 진영 논자들의 경제사상 해명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미유학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을 체득하고 귀국하여 민족·자본주의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해방후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이 되었던 지식인들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한 작업은 드물었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그간의 연구사적 공백을 일부분이나마 메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 序 言

근현대 한국 경제사연구를 체계화함에 있어서 경제구조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본고에서 이용한 한승인의 저서와 편지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 이용하는 데에 시카고대학에서 이광수를 연구중인 신동준(Michael D. Shin) 선생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 또한 한승인에 관한 증언을 주신 연세대학교 尹起重 교수님과 UCLA에서 수학중인 감승환(Howard S. Kahm) 씨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당대 지식인들의 經濟認識, 經濟思想을 해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건설과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그 주역이 되었던 인물들의 경제사상 해명은 남북 분단의 내적 원인을 고찰하고 향후 통일국가의 경제이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후까지 社會主義, 社會民主主義, 社會改良主義 등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지식인들의 경제사상을 정리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경제학자들과 이른바 중간과 진영 논자들의 경제사상 해명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미유학을 통하여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을 체득하고 귀국하여 민족·자본주의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해방후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이 되었던 지식인들을 검토한 작업²⁾은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1903년 平南 江西에서 출생하여 일본 明治大學을 거쳐 1926년부터는 미국의 풀러튼, 미주리, 콜럼비아 대학에서 차례로 유학하면서 자본주의 經濟學, 商學을 흡수하는 한편 興土團에서 활동하였으며, 귀국해서는 협성실업학교 교사와 화신백화점 사원을 지내면서 同友會에서 활약하였고, 해방후에는 미군정의 商務部 商務局長과 駐韓經濟協助處(ECA) 고문, 제2공화국의 駐佛公使를 지냈던 韓昇寅(Warren S. Hahn, 1903~1990)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한승인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경력 때문이다. 주지하듯 남한 자본주의 국가건설 과정에는 구미유학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경제사상을 체득하였던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의 상당수는 안창호의 興土團·同友會 계열과 이승만의 同志會·興業俱樂部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남한 자본주의 국가건설의 한 支流를 이루었던 흥사단·동우회 출신으로서 미군정에 참여하였던 한승인은 남한 자본주의 국가건설에서 활약하고 그 주역이 되었던 지식인들의 경제인식, 경제사상 측면을 해명할

1)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홍성찬 [146], 방기중 [128], [126], [127], 李秀 · [137], [138], 김기승 [120] 참조.

2) 그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로는 방기중 [126] 참조.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그 동안 조직구성, 참가인물을 통한 단체의 성격 규명에 치우쳐 주요 단원들의 경제사상을 해명하는 데에는 다소 소홀했던 홍사단·동우회 관련 연구들³⁾의 연구사적 공백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II. 경제인식의 형성과정

1. 성장배경과 일본유학

한승인은 1903년 平南 江西郡 水山面 雲北里 230番地에서 淸州 韓氏인 父明湜과 母 張氏 사이에서 출생하였다.⁵⁾ 그의 회고에 의하면, 그의 고향은 40리 길을 걸어야만 겨우 기차를 볼 수 있을 만큼 외벽에 위치하였고, 거주하던 40여 戶 중에서 1일 3식하는 가정은 3~4호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난한 고장이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사는 매우 불우하였다. 그의 부친은 “사방 백리에 이름이 알려진 한학자”였으나 1911년에 장티푸스로 사망하였고, 모친도 잦은 병치레 끝에 1918년에 사망하였다. 형제는 7남매가 있었지만 5남매는 어려서 병사하고 3살 아래의 여동생(韓昇淸)이 유일한 혈육이었으나 부모의 사망 몇 년 후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말 그대로 ‘혈혈단신’의 고아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다. 평안도 지역이 他지역보다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과 같이 강서군도 기독교가 매우 繁盛하였다.⁶⁾ 長老敎와 監理敎가 가장 성하였지만 安

3) 興土團史編纂委員會 [78], 박찬승 [125], 김상태 [121], 趙培原 [141], 河かおる [153], 서중석 [130].

4) 한승인은 안창호와 홍사단의 사업과 이념을 “永久不朽의 聖業”으로 만들기 위해 안창호의 전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안창호에 대한 존경심은 이 책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한승인 [3].

5) 한승인의 성장과정은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한승인 [7], [4], 조종무 [66] 참조.

6) [61], 韓宗敏 [70].

息教 신자도 상당수 있었는데,⁷⁾ 그를 처음으로 기독교에 입문시켰던 이는 第七日安息日教會의 鄭長老였다. 한승인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1913년 봄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眞明學校에 입학하여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신식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⁸⁾ 가난한 그에게 근대적인 학교 교육을 시켜 주었던 정장로와 진명학교는 평생의 은인이었던 셈이다. 그가 훗날 진명학교가 없었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기차도 타보지 못하고 평양이나 진남포도 구경하지 못한 채 한 줌 흙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면서, 그의 진명학교 수학을 두고 “천우신조의 행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격해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⁹⁾

1917년에 진명학교를 졸업한 한승인은 곧바로 順安에 소재한 義明學校¹⁰⁾에 진학하였다. 이 학교 역시 제칠일안식일교회가 운영하는 남녀공학의 4년제 학교로서, 학생들은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노동을 하여 학비를 면제받고 있었다. 가난하여 학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한승인에게는 適格이었다. 그러나 안식교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이 학교는 제칠일안식일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으며, 안식교는 토요일을 주일로 삼으며 예수 再臨을 굳게 믿어 정치, 사회제도 개선 등의 현실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다. 한승인은 민족이 처한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안식교 교리에만 집착할 수는 없었다.

갈등의 계기는 1919년 3·1운동에서 주어졌다.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등지에서 독립선포식과 만세시위가 일어나 삼시간에 평안도 전지역으로 확산된 만세운동은 그가 거주하던 順安에서도 흥기하였는데, 당시 그는 여기에 참가하였다.¹¹⁾ 그리고 그는 장로교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서는 일부 선교사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안식교 선교사들은 전혀 참가하지 않는 사실을 목도

7) 1930년대 중엽에 장로교는 포교소수 15, 포교자수 17, 신도수 3,275이었고, 감리교는 18, 21, 2,234, 천주교는 6, 11, 428, 안식교는 12, 8, 370이었다. [61], 239쪽.

8) 眞明學校는 수산면 운북리에 위치한 4년제의 사립학교로서 1935년 현재 학급수 2개, 교원수 2명, 학생수 75명에 불과하였다. [61], 238쪽.

9) 한승인 [7], 23쪽.

10) 1906년 10월 10일 창설되어 1942년 폐교되었다가 1949년 서울에서 다시 개교하였다. 현재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삼육대학의 前身이다.

11) 김양선 [122], 235~270쪽, 이윤상 [139], 286~287쪽.

하면서 안식교에 크게 실망하였다. 한국인들의 비폭력적인 만세운동, 독립운동에 대해 일제의 폭력적인 탄압이 가혹하게 진행되는 상황 — 특히 인접한 강서군 반석면 사천리 모락장에서는 日警과의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에서 오로지 예수의 재림만을 믿고 현실의 사회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¹²⁾ 결국 3·1운동을 거치면서 그의 排日思想은 커져갔고, 현실문제에 무관심한 안식교 선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생겨났다.¹³⁾

1921년 義明學校를 졸업한 그가 졸업 후 교회로 진출하는 일반적인 의명학교 졸업자와 달리 재차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정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향후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던 모친의 유언과 경제적으로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고등교육으로 돌파해 보려는 그의 의지와 결심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⁴⁾ 그는 동급생이었던 許然,¹⁵⁾ 林正基와 함께 당

- 12) 안창호와 조만식의 출생, 성장지이기도 한 강서군은 배일사상과 독립열이 강한 지방이었다. 특히 강서군 모락장 만세운동은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사건과 더불어 기독교도가 참여한 대표적인 3·1운동의 하나로 꼽힌다. 韓宗敏 [70], 279~286쪽, 曹仲瑞 [142], 135~145쪽 참조.
- 13) 그러나 한승인이 안식교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안식교는 가난한 고아인 그에게는 '救世主'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1918년 모친의 사망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한승인에게 의명학교의 이회만(Howard H. Lee) 교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알선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을 정도였다.
- 14)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에 ‘승인이 너는 끝까지 공부하고 네 누이는 고모집에 보냈다가 시집보내라’고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때 나의 어린 마음에도 옳다 공부다 공부다 어찌하든지 공부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결심이 강했습니다.” 韓昇寅 [37], 294~296쪽.
- 15) 일명 許龍成(1896~1946)으로 1896년 8월 평남 순안에서 허봉국의 장남으로 태어나 1918년 3월 의명학교에 입학하여 1920년 퇴학하였으며 이후 상해로 건너가 三月대학 중학부에 입학하여 1923년 2월 졸업하였다. 귀국 후 동년 4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24년 가을 중도 퇴학하고 渡美하였다. 1925년 2월 로아녹(Roanoke)대학(버지니아주 소재)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29년 5월 졸업하였으며 이후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하여 1931년 6월 졸업하고 피파크대학에서 1년간 경제학을 연구하였다. 1933년 귀국 후 9월부터 협성실업학교 교사로 취직하여 1937년 동우회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영어, 상업, 산술, 조선어학 등을 가르쳤다. 한승인과는 성장과정도 비슷하며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같은 경로를 밟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李顯求 [63], 297~298쪽, 許然 [113], 293~294쪽, 한승인, “중학동창 허연과 임정기”, [7], 38~52쪽 참조.

시로서는 자칫 무모한 미국유학을 계획하고, 우선 일본유학을 택했다. 東京으로 건너간 그는 1921년 4월에 3년제인 明治大學 專門部商科에 입학하였다.¹⁶⁾ 1904년에 중등상업교육과 상업대학교육의 사이에서 商業專門教育을 담당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문부상과는 상학부에 비해 수업료가 저렴하여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다. 학교 당국은 전문부상과의 학생들에게 실천적 상업고등교육을 이수시켜 이들을 향후 상업계, 실업계의 지도계급으로 양성한다는 목적하에 교과목도 상학부와 비교하면 상학이론보다 상업실무에 치우쳐 편성하고 있었다.¹⁷⁾ 한승인은 여기에서 상법, 경제학, 상업학, 상공정책과 같은 기초이론에서부터 주산, 부기, 회계, 상업수학, 상업문, 상업실천, 상사경영과 같은 상업실무에 이르는 여러 과목을 수학하여 상학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갔다. 상업이 매우 흥성하였던 평안도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수시로 場市를 출입하면서 각종 물자의 유통에 대해 눈을 떴고 또한 일본인 상인, 고리대업자들의 상권 침탈을 목도하면서 분개하였던¹⁸⁾ 그가 자신의 전공으로서 商學을 선택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승인은 이곳에서 줄곧 미국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학업에 임했다. 그러나 그의 일본유학생살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위기는 1923년 9월 1일 關東大震災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¹⁹⁾ 관동대진재는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수십만 채의 건물이 부서지거나 소실된 대참사, 대재난이었다. 하지만 당시 동경의 한국인들에게는 지진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폭

16) 명치대학의 교육과정과 학풍은 長井善藏 [71], 97~102쪽, 明治大學百年史編纂委員會 [77], 805~857쪽 참조.

17) 명치대학 전문부상과의 1924년도 교과목 편성은 다음과 같았다. 팔호 안은 주당 수업시간이다. 1학년 : 商業通論·關稅倉庫(2), 簿記及會計學(3), 商業數學(2), 商業地理(2), 商業史(4), 經濟學(4), 民法(3), 商業文(2), 工業通論(2), 書方(1), 英語(6), 倫理(2), 心理學(2), 2학년 : 取人所(2), 簿記及會計學(3), 商業數學(2), 商品學(2), 經濟思潮史(1), 財政學(2), 民法(2), 商業文(2), 銀行論(2), 珠算(1), 英語(6), 商業實踐(1), 倫理學(2), 3학년 : 商事經營(2), 簿記及會計學(2), 保險學(2), 交通論(2), 商工政策(2), 社會政策(2), 商法(4), 商業文(2), 哲學概論(2), 珠算(2), 英語(6), 商業實踐(2), 教授法(2). 明治大學百年史編纂委員會 [76], 174쪽.

18) 한승인 [7], 14~16쪽. 어려서 자주 출입했던 威從場이나 의명학교 시절에 출입했던 順安場은 郡內에서 성대한 장시의 하나였다. [61], 544~547쪽.

19) 韓昇寅 [1]. 관동대진재는 韓昇寅 [1], 姜德相·琴秉洞 編 [119], 강덕상 [118] 참조.

도들의 비인도적 만행에 의해서도 무고한 희생이 잇달았다. 이 때문에 관동대진재는 아직까지도 '근대 한일관계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²⁰⁾

한승인은 바로 그곳에서 일본인 폭도들의 한국인 학살현장을 직접 목격하고서 귀국하여 그들의 잔학상을 국내에 알렸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와 중학교 동창 李周燾은 '말세의 징조'라고 여길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지진을 맞아 노상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동경 시내를 배회하다가 '한국인들이 지진을 틈타 일본인들을 죽이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눈이 빨개져" 한국인들을 찾고 있던 일본인 폭도들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술한 한국인 동포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준 사람은 '匿名의 日本人'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폭도들을 맨몸으로 막아서 이들을 구한 다음 안전지대인 明治神宮으로 후송하여 보호해 주었다. 그 덕분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살해된 동경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한승인 일행은 이튿날(9월 3일) 80리를 걸어서 浦和에 도착하고, 浦和에서 條井으로, 條井에서 名古屋으로, 名古屋에서 下關까지 기차를 갈아타면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여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기차여행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본인 폭도들이 여러 차례 기차에 난입하여 한국인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이들은 일본인처럼 행동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결국 9월 5일에 關釜연락선을 타고 6일에 入京함으로써 진재와 폭도로부터 '百死一生'으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귀국 후 이들은 관동대진재 참사에서 살아나 고국으로 돌아온 최초의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동경에서 겪은 참사와 한국인 학살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일본인 폭도들의 잔학성을 폭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²¹⁾ 이 때문에 이들은 일제에 의하여 유언비어 유포와 허위선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들의 증언을 실었던 신문기사는 일부가 삭제되었다.

20) 한국인 사망자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사기관에 따라 최저 233명부터 최고 6,433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덕상 [118], 185~201쪽.

21) 「東亞日報」, 1923. 9. 7.

이 사건 이후 한승인은 ‘不逞鮮人’이라는 낙인이 찍혀 일경의 감시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일본인 폭도들의 野獸的 蠻行을 목격하고서 더 한층 排日意識을 強化하여 갔다.

2. 미국유학과 興士團

한승인은 3·1운동과 관동대진재를 경험하면서 排日意識이 더욱 투철해졌지만, 일본유학 자체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1923년 11월에 明治大學이 개학하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유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며 이를 줄기차게 추진했다. 특히 의명학교 시절에 미국유학을 약속했던 임정기와 허연이 1922년과 1924년에 각각 미국유학을 떠나자 그 열망은 더욱 강해져, 지도상의 “요코하마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붉은 선을 그어 가면서” 자신의 결심을 다져 나갔다.²²⁾ 1925년 5월 명치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우선 생명보험회사에 취직하여 1년 동안 미국에 갈 여비를 마련하였고, 여러 곳에 청원하여 미국여행권도 획득하였다. 그러나 그의 미국유학 계획은 한 차례 진통을 겪어야 했다. 힘겹게 모은 여행경비를 친구에게 빌려주었으나 사기를 당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한 미국유학이 무산될 지경에서 선뜻 비용을 마련해 준 사람은 명치대학 선배이자 당시 동아일보사 사장이었던 송진우의 소개로 만난 仁村 金性洙였다.²³⁾

1926년 10월에 호노룰루,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한승인은 미국인 부호의 가정부로 일하거나 농장의 잡역부로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고학생활을 시작하였다.²⁴⁾ 그리고 여러 대학을 옮겨가면서 학업을 쌓아 나

22) 한승인 [7], 41쪽.

23) 일제하 고부 김씨가는 여러 유학생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 한승인도 그 수혜자의 한 사람이었다. 한승인, “인촌 김성수”, [7]. 귀국 후에 한승인이 주로 「동아일보」, 「신동아」를 통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관동대진재를 계기로 처음 만났던 고향 송진우와 연관이 있었다. 한승인, “고하 송진우”, [7].

24) 한승인의 미국유학생활은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한승인 [2], [41], 73~75쪽, [39], 88~93쪽, [31], 57~59쪽 참조.

갔다. 1927년 1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郡에 위치한 풀러튼대학(Fullerton College)에 입학하였고, 1928년 9월에는 미주리주립대학(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 입학하여 1929년 6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 잠시 적을 둔 후 1930년 9월에는 콜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 商科(School of Business)에 입학하여 1931년 8월에 석사학위(Master of Science)를 취득하였다.²⁵⁾ 서부의 조그만 초급대학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동부의 명문대학으로서 아이비리그(Ivey League)의 하나인 콜럼비아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친 미국유학생들은 그의 경제인식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크게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知的 思潮들을 흡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승인의 경제인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興士團과 그 團友들이었다. 주지하듯 홍사단은 1913년 5월 1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島山 安昌浩가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務實力行으로 생명을 삼는 忠義男女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德, 體, 智 三育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회합하였던 민족주의 운동단체였다.²⁶⁾ 한승인은 안창호와 같은 평남 강서 출신이었으므로 어려서부터 그의 명성을 들어 왔고, 미국에 오기 전에 이광수로부터 홍사단에 입단할 것을 권유받은 데다가,²⁷⁾ 渡美한 이후에는 이해련(島山の 부인)의 도움을 꾸준히 받아왔으므로²⁸⁾ 그의 홍사단 입단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경로였다. 1930년 시카고에서 홍사단에 입단한 한승인은 崔允鎬, 崔熙松, 金秉煥, 吳天錫 등 당시 홍사단 미주본부의 핵심단원들과 교류하면서 홍사단의 實

25) Frank D. Fackenthal [80], p. 354.

26) 홍사단은 三千里社調查部 編 [115], 10~12쪽, 興士團史編纂委員會 [78], 김상태 [121], 서중석 [130] 참조.

27) 한승인, “춘원이광수”, [7], 109쪽.

28) 한승인과 안창호, 이해련의 관계는 한승인, “안창호씨 부인 이해련 여사”, [7], 65~76쪽, “도산안창호”, [7], 210~227쪽, [3], [2] 참조.

力養成, 民族改造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면화해 갔다.²⁹⁾ 당시 흥사단원들은 향후 미래를 대비한 敎育과 修養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급진적인 실천방안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있었는데³⁰⁾ 한승인은 여기에도 영향을 받았다.

한승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두 번째 요소는 基督敎的 윤리관과 생활관, 그리고 뉴욕한인교회로 대표되는 신앙생활이었다.³¹⁾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안식교 신자였던 그는 미국에 유학하면서부터는 안식교를 떠나 웨이커회, 감리교, 장로교 등 여러 종파를 거쳤지만 일관되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³²⁾ 그리고 이는 그의 고달픈 유학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고아로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였지만 유학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학기중에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맡거나 미국인 부호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방학에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1일 2식하며 하루 다섯 시간의 수면으로 버텨야 할 때도 있었고, 대공황 때에는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서 香, 中國茶 등을 판매하는 길거리 행상에 나서기도 하였다.³³⁾ 연속되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기도와 절제 있는 생활태도를 잃지 않았다. 한편, 콜럼비아대학에 유학하면서부터는 뉴욕한인교회에 출입하였다. 뉴욕한인교회는 1922년에 설립되어 부근의 교포와 유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었는데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사교장소이자 의지처가 되고 있었다.³⁴⁾ 한승인은 여기서 강용홍, 김경, 김도연, 김마리아, 김활란, 노재명, 문장욱, 박인덕, 안승화, 윤병구, 윤홍섭, 이철원,

29)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들이 부족하여 흥사단 미주본부 내에서 한승인의 지위,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한승인은 1930~1931년도 서무원이었던 崔熙松, 1932~1936년도 서무원이었던 金秉煥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東光」의 판매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金熙 [88], 廉光燮 [94]. “상당한 敎育과 상당한 수양업시는 주관적 나의 활동이 가치있는 활동, 합리적인 활동, 과학적인 활동, 민족의 행복상 유효한 활동됨이……다만 運에 불과할 터”, 廉光燮 [94], 31쪽.

31) 당시 미국유학생들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큼 유학생들의 상당수는 교회를 드나들었다. 당시 유학생들의 신앙생활은 張利郁 [107] 참조.

32) 한승인 [4], 247쪽.

33) 한승인 [16], 95~97쪽, [2], 14장, [89], 113~119쪽, [91], 41~50쪽.

34) 최병현 [67].

정일형, 송기주, 허진업, 정태진 같은 유학생들과 김영록, 임초, 조극, 황창하, 안정수, 정경희, 정신희 같은 실업인들을 만나 교류하였다.³⁵⁾ 그리고 이들은 한승인의 유학생생활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³⁶⁾

세 번째 요소는 北美留學生總會(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와 그 임원진들과의 교우관계였다. 북미유학생총회(이하 총회)는 1919년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총회 본부는 원래 필라델피아에 있었다가 1923년경에 시카고로 이전하였는데,³⁷⁾ 한승인은 시카고대학에 머물 때부터 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회는 회원수 300여 명에 이르렀으며 한국어 기관지 「우라키」를 발행, 국내에 보급하여 “지식계급의 언론기관”임을 자처하였고, 北米基督教青年會 外國學生親善部(Committee on Friendly Relations among Foreign Students)와 친선관계를 맺어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입학 수속, 장학금 알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영문 기관지로서 *The Korean Student Bulletin*(이하 *K.S.B.*), *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Pamphlet*을 발행하고 있었다.³⁸⁾ 특히 총회 임원진에는 홍사단 계열의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총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을 정도였다.³⁹⁾ 홍사단 단우였던 한승인도 여기에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기록

35) 조종무 [66], 최병현 [67], 말미의 교인명부 참조. 당시 남궁염, 이기봉, 이병두, 김세선, 김계봉, 윤병구 같은 同志會 계열의 인사들도 뉴욕한인교회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한승인을 비롯한 홍사단 계열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최병현 [67], 181~184쪽.

36) 일례로 한승인은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입학 수속을 밟았고, 정경희, 정신희 형제는 한승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조종무 [66], 319~320쪽. 한승인은 임초의 집에서 잠시 기거한 듯하다. 김병연에게 보낸 편지 말미의 “弟의게 편지할 때에 林超宅으로 하시오.” 참조.

37) 李炳斗 [102], 164~166쪽, 吳天錫 [98], 29쪽, 최병현 [67].

38) 張世雲 [106], 李炳斗 [103]. 친선부 총무직은 북미유학생총회 사교부장이 겸임하였다. 총회에서는 ‘貸與基本金’이라는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적으로 곤란한 유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고 있었다.

39) 1929년 6월에 열린 북미유학생총회에서 임명된 임원은 회장 李勵求, 부회장 張世雲, 총무 崔敬植, 기록서기 한승인, 통신서기 許奎, 재정부장 金世蕪, 사교부장 吳天錫, 종교부장 朴仁德, 운동부장 신영철, 편집부장 이훈구, 영업부장 金燦, 이사부 회장 김마리아, 부회장 김민준, 서기 盧在明이었다. *K.S.B.*, vol. 7-4, 1929. 10, p. 4, 「우라키」 4, 1930, 150쪽. 1930년에 개선된 임원들은 회장 장세운, 총무 김훈, 기록서기 김세선, 통신서기 Say K. Hahn(한경직?), 재정부장 김호철, 편집부장 전영택, 영업부장 한승인, 사교부장 오천석, 중

서기, 영업부장)을 맡았고, 기관지 「우라키」의 편집부원으로도 참여하였으며, 이를 크게 자부하였다.⁴⁰⁾ 당시 총회의 주도인물들은 제국주의 압제하에 놓여있는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면서도 거대 미국 자본주의의 물질문명에 압도되고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 함몰되어 교육·산업·과학·농촌진흥 등 각종 실력양성 운동방안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는데⁴¹⁾ 한승인은 이들과 교류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크게 공감하였다.⁴²⁾

네 번째 요소는 콜럼비아대학의 유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이 학교의 學風이었다.⁴³⁾ 당시 콜럼비아대학은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의 하나로서 클라크, 셀리그만, 무어, 미첼 등 우수한 경제학자와 듀이 같은 저명한 철학자가 강의, 연구하던 ‘黃金時代’를 구가하고 있었다. 특히 1895년부터 콜럼비아대학에 재직하였던 클라크(J. B. Clark)는 限界效用學說을 받아들여 자본과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된다는 ‘限界生産力說’을 주장하였고, 부의 불공평문제를 엄밀한 경제이론과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여 콜럼비아대학의 경제학풍을 형성하였고,⁴⁴⁾ 러시아인 썬코비치(V. G. Simkhovitch)는 금융, 재정학, 경제학 원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 강의를 행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확산시켰다.⁴⁵⁾ 또한 미국학계에

교부장 김활란, 운동부장 George H. Lee(李漢植?), 이사부 회장 김인준, 부회장 김명선, 서기 갈홍기였다. *K.S.B.*, vol. 8-4, 1930. 12, p. 2, <한승인이 최희송에게 보낸 1931. 5. 11자 편지>. 「우라키」, 5호(1931)의 편집진은 주필 田榮澤, 廉光燮, 崔敬植, 張世雲, 한승인, 任英彬, 韓世光이었고, 「우라키」, 6호(1933)의 편집진은 편집부장 鄭一亨, 편집부원 한승인, 張世雲, 卞榮魯, 金世璇이었다. 홍사단원으로 확인된 이들은 최경식, 한승인, 오천석, 김마리아, 김훈, 전영택, 염광섭, 한세광, 정일형 등이다.

40) 김병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의 “학생회는 홍사단우들이 거의 前列하다시피 하는 機關인 즉”, 최희송에게 보낸 1931. 2. 10일자 편지의 “우라키가 다 우리의 손으로 경영되는이만큼 ‘홍사단’에서도 후원할 줄 믿읍니다” 참조.

41) 방기중 [126].

42)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은 분할·고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와 친밀히 교류했던 홍사단 단우들은 대부분 뉴욕한인교회를 출입하며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획득한 인맥은 해방후 그의 정치적 행로에도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43) 당시 콜럼비아대학의 학풍은 寶乙生 [90], 147~149쪽, 李秀日 [136], 180~182쪽, 趙炳玉 [65], 43~54쪽, 金度演 [60], 102~105쪽, 張利郁 [64], 117~118쪽 참조.

44) 홍기현 [144], 191~202쪽.

실용주의를 정립시킨 듀이(John Dewey) 교수는 연구와 강의뿐만 아니라 북미유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었다.⁴⁶⁾

그런데 한승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그가 전공한 상학을 가르쳤던 상과의 교수진이었다.⁴⁷⁾ 당시 미국경제는 南北戰爭 이후 미국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경영이 발전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대규모 경영을 과학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대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학자, 실업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⁴⁸⁾ 이러한 사정에 부응하여 미국의 여러 대학에는 商業專門學校가 속속 설립되기에 이르렀는데, 콜럼비아대학 상과도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설립된 곳이었다. 특히 이 학교의 상과는 1920년대 후반 이후 學長 에그베르트(Egbert)를 중심으로 한 교수, 학생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量的, 質的으로 큰 발전을 거두고 있었다. 1929년에 정교수 1명, 조교수 3명, 전임강사 3명, 강사 4명에 불과하였던 교수진이 1932년에는 정교수 11명, 부교수 5명, 조교수 7명, 전임강사 7명, 강사 4명으로 확충되었고, 학생수도 크게 늘었다.⁴⁹⁾ 또한 1926년을 기점으로 이 학교의 교과과정도 마케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45) 趙炳玉 [65], 44쪽.

46) *K.S.B.*, vol. 9-4, 1931. 12, p. 1. 듀이는 한승인과 뉴욕한인교회를 다니며 홍사단, 총회에서 활약하였으며 늘 동고동락했던 친구 吳天錫의 지도교수였다. 따라서 한승인도 듀이에 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듀이는 후술하는 브루너와 함께 *K.S.B.*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였다.

47)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미국의 상학과 콜럼비아대학 상과의 학풍은 Thurman W. Van Metre [82], Chap. 3, 古川榮一 [150], 3~38쪽, 吳相洛 [133], 26~46쪽 참조.

48)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당시 미국의 상학은 '응용경제학'이라 불릴 만큼 그 실천적·실용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49) 콜럼비아대학 상과의 1931~1932년간의 교수진은 정교수로서 헤이그(Haig), 케스터(Kester), 맥크리아(McCrea), 반 메트르(Thurman W. Van Metre), 윌리스(H. Parker Willis), 블랜차드(Blanchard), 본브라이트(Bonbright), 밀즈(Mills), 모건(Morgan), 스미스(Smith)가 재직하였고, 부교수로는 라이온(Lyon), 벡하트(Beckhart), 도어(Dohr), 오카드(Orchard), 스탁더(Stockder)가 있었고, 조교수로는 알렉산더(Alexander), 브리센든(Brissenden), 번즈(Byrnes), 채프먼(Chapman), 도드(Dodd), 나이스트롬(Paul Henry Nystrom), 닉슨(Howard K. Nixon)이 있었다. Thurman W. Van Metre [82], pp. 70~72.

던 사람은 나이스트롬(Paul Henry Nystrom)과 닉슨(Howard K. Nixon)이었다. 나이스트롬은 『소매와 점포경영』(Retail Selling and Store Management), 『소매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Retailing) 등을 저술한 당대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서 1926년에 마케팅 교수로 부임하여 소매업과 소비경제학 과정을 발전시켰다.⁵⁰⁾ 또한 닉슨은 광고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였다.⁵¹⁾

교과과정의 변화는 당시 미국의 유통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경제는 생산과정의 합리화, 즉 상품의 표준화·단순화, 작업공정의 전문화·단순화에 의한 대량생산이 전개됨에 따라서 유통과정에서도 대량판매가 요구되고 있었고, 대량생산·대량판매의 독점자본주의가 발전의 도를 심화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경쟁의 격화와 자본집중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승인의 스승이었던 나이스트롬, 닉슨, 라이온 등은 이러한 난관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⁵²⁾에 의거한 販賣管理(sales management)의 改善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광고와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이른바 ‘消費者 指向的’인 마케팅이었다. 한승인은 여기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승인의 농업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학자는 콜롬비아대학 농촌사회학과의 브루너(Edmund S. Brunner) 교수였다. 당시 미국은 급속한 공업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농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⁵³⁾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農村生活委員會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등 농촌사회학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연구들은 대부분 농촌 각지의 실증적 조사에 치우쳐 應用的, 政策貢獻的, 實用的 성격

50) 시장 분석가, 소매상업의 컨설턴트이자 리서치 디렉터로서도 잘 알려진 나이스트롬은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B. Altman and Company와 함께 산학협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51) 교수진 중의 라이온도 마케팅관리를 판매관리의 상위에 두어서 이른바 ‘소비자 지향’의 마케팅을 추구한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였다. 吳相洛 [133], 36쪽.

52)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해리 브레이버맨 [149], 81~124쪽, 다니엘 렌 [148], 제2부, 배영수 [129], 송성수 [131] 참조. 1950년대 초 한승인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과학적 경영으로 대표되는 산업합리화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적이 있었다. 韓昇寅 [53].

53) 崔敬植 [112].

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⁵⁴⁾ 브루너는 社會宗教研究所(Institute of Social and Religion Research)를 설립하여 직접 140여 개의 촌락을 실지조사하는 등 이러한 미국 농촌사회학계의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의 하나였다. 또한 그는 1927년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농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國際傳道委員會(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예루살렘大會(Jerusalem Meeting)에서 발표하는 등 한국의 농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⁵⁵⁾ 기회 있을 때마다 일제의 농업정책,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고 유학생들이 농촌진흥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여 유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⁵⁶⁾ 한승인도 이러한 브루너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다.⁵⁷⁾

한승인은 이렇듯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적 조류들을 흡수하면서 세계정세와 미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하는 한편,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고통받는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고 번민하였다. 우선 그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世上 一隅에서 平和, 正義를 부르짖지만 그것은 “꿈” 같은 소리이며, 세계정세는 “ 강한 자의 天地”며 “富한 자의 舞臺”라고 보았다.⁵⁸⁾ 그가 판단하기에, 미국이 먼로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자본의 남미진출을 장려하는 것은 그 裏面에 남미를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狡猾한 野心’과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富國인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상을 목도하고서 거기에 압도당하였다. 미국의 거대도시 시카고, 뉴욕 등을 둘러보고 마샬필드(Marshall Field)나 메이시(Macy) 같은 거대 백화점들과 율위스

54) 당시 미국의 농촌사회학계에 대해서는 洪東植 외 [145], 21~26쪽, 王仁權 [135], 18~22쪽, 鈴木榮太郎 [151], 3~77쪽 참조.

55) 보고서의 제목은 Edmund de S. Brunner [79]이었다. 이 책은 유학생 추천도서 50권 중 한 권이었다. *K.S.B.*, vol. 9-1, 1931. 3, p. 4.

56) *K.S.B.*, vol. 7-2, 1929. 5, p. 3; *K.S.B.*, vol. 10-1, 1932. 3, p. 7; 브루너 [114], 13쪽. 콜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한 유학생으로는 조병옥, 장리욱, 김도연, 장덕수, 오천석, 김세선, 김철란, 김우평, 김득수, 노정일, 윤홍섭, 이궁중, 이명혁, 황인식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조병옥, 장리욱, 김도연, 이궁중 등과 같이 일찍 귀국하여 한승인이 교류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가 귀국한 후 동우회를 통하여 이들과 교류하였고, 일부는 해방후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였다.

57) 한승인은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브루너의 책을 다섯 차례나 인용하였다. 학위논문 분석은 논지전개상 후술한다.

58) 韓昇寅 [9], [8], [11], [15].

(Woolworth) 같은 대규모 체인점을 시찰하고서 強大國 미국의 ‘힘’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미국의 힘은 경제력에 있으며 그 경제적 발전은 “致富術에 能”하고 “冒險心이 富”한 포드나 록펠러 같은 미국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이 견인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조국의 기업가들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경영술에만 얽매어서 침단의 상술로 무장한 일본인 상인들에게 “敗北를 當”하고 있었으므로 “恐怖와 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⁵⁹⁾ 따라서 한승인은 弱肉強食의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길은 오로지 경제력의 증진에 있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늘 고심하고 있었다.

한편, 한승인은 미국이 1920년대 후반 극도의 번영을 누리다가 1929년에 대공황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대공황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극심한 물가폭락과 기업도산, 그리고 실업 격증의 경제위기는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며, 그 자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행상으로 겨우 연명하며 대공황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상황과 파멸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그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물론 그도 미국경제의 위기는 富의 偏在와 大財閥의 獨占的 經營, 國際的 孤立主義에 따른 關稅引上, 주식·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투기행위 등의 모순이 초래한 것으로서 ‘소수술로써는 고칠 수 없는 중병상태’라는 점에는 동의를 했다.⁶⁰⁾ 그러나 루즈벨트에 의하여 추진된 일련의 공황타개책, 즉 뉴딜정책 전개과정과 공황극복과정에 주목하여 미국인들의 “일치협력”하여 난국을 타개하려는 태도를 높이 사고 이 때문에 최악의 역경에서도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여 부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⁶¹⁾

그의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경제위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조에 의하여 타개될 수 있다는 이른바 ‘勞資協助’觀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경제발전을 위

59) 韓昇寅 [12], 50~58쪽.

60) 韓昇寅 [24].

61) 韓昇寅 [24], [2], 175~195쪽.

해서 자본가는 생산, 분배, 관리의 세 가지 활동을 조화시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동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⁶²⁾ 따라서 그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의 실업 방지를 위해서, 계절에 따른 노동수요 격차 완화, 실업보험제도 마련, 노동시간 축소,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같은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勞資 양측에 서로 유익하고 공정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실업대책·노동관은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商品으로 看做하지 말고 한 人類로 待遇”해 줄 것을 바라는 ‘溫情主義的 失業對策’으로서 改良主義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이렇듯 세계경제, 미국경제에 대한 인식을 체계화하는 가운데 앞서의 몇 가지 경로들을 통하여 한승인은 흥사단의 무실역행, 민족개조, 실력양성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신의 民族改良主義 경제사상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집약되었다.

한승인은 학위논문에서 일제하 한국의 대외무역이 경제구조,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려 하였다.⁶³⁾ 그에 의하면, 한국의 대외무역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1924년과 1925년을 제외하고서는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가운데 무역구조가 일본 중심으로 편재되어 갔으며, 수출은 농산물, 특히 쌀이 크게 늘어나고 수입은 주로 완제품·반제품의 공산품, 특히 직물이 늘어나 이른바 ‘米綿交換體制’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역지표만 본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명백하였지만, 한승인은 이것이 한국인의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히려 한국인의 경제는 정체상태에 있었고

62) 韓昇寅 [14], [23].

63)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Warren Hahn [57] 참조. 한승인의 문제의식은 당시 유학생들이 공유하던 관심사의 하나였다. 총회 회장이었던 이훈수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었고, 뉴욕한인교회 교인이었던 안승화도 한국의 대외무역을 고찰한 적이 있었다. 李勳求 [104], 안승화 [93], p. 4. 특히 한승인과 이훈구는 일본유학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승인은 관동대진재가 발생했을 때 맨 처음 이훈구를 찾았고, 미국유학시 이훈구가 총회 회장을 맡았을 때에는 기록서기를 했고, 귀국 후 金良洙, 盧東奎, 白南雲 등과 더불어 이훈구의 『朝鮮農業論』 출판기념회 발기인이 되기도 하였다. 후술하듯이 이들은 해방후 미군정에도 같이 참여하였다. 한승인 [1], 87~88쪽; 『朝鮮日報』, 1935. 6. 28 참조.

한국의 산업은 황폐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한국인들의 이익을 착취해서라도 일본인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려는 일제의 경제정책에서 찾았다. “한국은 일본의 자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기초한 일제의 “이기적인” 경제정책 때문에 한국은 일제의 원료 공급지, 완성품 시장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이 토착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제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향후의 경제정책을 신용의 원칙에 근거한 상호이익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일제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정책 전환에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개량주의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일제하 同友會 활동과 경제인식

1. 同友會와 實業活動

콜럼비아대학을 졸업한 후 한승인은 귀국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끝에 1933년 7월 귀국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국의 정치 상황을 생각하거나 고향에 가도 반겨줄 가족도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귀국할 이유는 별로 없었지만, 그는 홍사단원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 보겠다는 “욕망과 신념”으로 귀국을 선택했던 것이다.⁶⁴⁾

귀국 후에 그는 미국유학 전에 잠깐 만났던 春園 李光洙와 깊은 교유를 하면서 춘원을 “형님, 동지, 대선배”로서 公私生活에 지도를 받는 스승처럼 여겼다.⁶⁵⁾ 춘원은 평남 정주태생으로 한승인과 동향이었고, ‘安昌浩의 首弟子’라 일

64) 한승인 [2], 33~37쪽.

65) 한승인, “춘원 이광수”, [7]. 한승인과 춘원과의 관계는 한승인의 네 자녀 중 세 명의 이름을 춘원이 지어주었다는 회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어지는 동우회의 핵심회원이었다. 한승인은 미국의 홍사단에서 체득하였던 무실역행, 실력양성, 민족개조의 사상을 춘원을 통해 내실 있게 다져 나갔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同友會에 가입하였다. 미국에 있을 때 홍사단에서 활동하였던 그가 홍사단의 국내지부로서 '異名同體'였던 동우회에서 활동한 것은 당연한 경로였다.⁶⁶⁾ 동우회 활동을 통해서 그는 홍사단에서 함께 일했던 오진석, 허연 이외에도 金炳淵, 金麗植, 吳禎洙, 李卯默, 李大偉, 張利郁, 趙炳玉, 朱耀翰, 崔能鎭과 교류하였다. 평안도 출신과 홍사단원, 동우회원을 중심으로 인맥을 크게 넓혀 갔던 것이다.

한편, 한승인은 이광수의 권유를 받아들여 1934년 2월에는 和信百貨店에 입사하였다.⁶⁷⁾ 화신백화점은 平南 龍岡출신의 朴興植이 경영하던 회사로서, 박홍식은 용강에서 미국객주, 인쇄소, 지물상 등을 경영하다가 1926년에 上京하여 선일지물을 경영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31년에는 종로의 저명한 상점이었던 화신상회를 인수하여 화신백화점으로 개편한 당대 최고의 한국인 상인, 자본가였다.⁶⁸⁾ 박홍식은 물산장려운동에도 참여하고 교육사업에도 힘쓰면서 이광수, 주요한을 비롯한 서북출신 민족주의자들과 교분을 맺었고, 화신백화점을 일본인 백화점들에 당당히 맞서서 상권을 수호하는 한국인 상인의 보루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기업가정신으로 경영에 임하던 중이었다. 미국에서 첨단 상학을 배워 왔던 한승인은 박홍식이 경영혁신을 위해 바라던 인물이고, 한승인으로서도 일본인 상점을 축출하고 한국인 상업을 진흥시켜 민족의 경제적 실력을 양성한다는 목적하에서 화신백화점 입사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조선 물산장려회에 참여하여 1934년 8월에 조사부 상무이사가 되었던 것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이었다.⁶⁹⁾

한승인은 1935년 말부터는 協成實業學校 교사로 일하였다. 협성실업학교는

66) 동우회는 원래 1922년 2월 '修養同盟會'에서 출발하여 1926년 1월 8일 平壤의 '同友俱樂部'를 합동하여 '修養同友會'가 되었다. 1929년 11월 23일 '同友會'로 개명하였다. 興土團史編纂委員會 [78], 김상태 [121], 趙培原 [141] 참조.

67) 한승인 [7], 109쪽. 1934년 4월 말 그의 직책은 計劃部主任이었다. [109], 107쪽.

68) 오진석 [134].

69) 한승인은 조선물산장려회 1934년 제2회 이사회에서 金良洙(경리부 상무), 申允局(선전부 상무)과 더불어 이사에 피선되었다. 「조선중앙일보」, 1934. 8. 7.

1905년에 西友學會가 세운 西友師範學校에서 출발하여 西北協成學校, 五星學校, 協成學校로 이어지면서 주로 서북출신 인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⁷⁰⁾ 그런데 아메리카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사단·동우회 회원이었던 金麗植이 1927년 교장에 취임하여 '교육을 통한 민족교화운동'을 전개한다는 목적 아래 인문계 협성학교를 실업계 協成實業學校로 개편하였고, 김려식은 늘상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성실업학교를 '무실역행'의 이념 아래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⁷¹⁾ 그리고 이는 홍사단·동우회의 실력양성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⁷²⁾ 홍사단·동우회의 이념을 견지하며 실행하려 했던 한승인으로서는 適格인 학교였던 셈이다.⁷³⁾

결국 귀국 후 한승인은 화신백화점과 협성실업학교에 취직하고, 동우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홍사단·동우회의 이념, 즉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 정신과 덕지체의 삼육을 통한 실력양성, 민족개조 이념을 충실히 실행하려 노력하였다.

2. 경제문제 인식과 商業振興論

한승인이 귀국할 당시의 상업계는 大商業資本(예컨대, 백화점과 연쇄점)에 의한 중소상인 압박이 점차 사회, 경제문제로 비화하고 있었다. 1930년에 일본 최고, 최대의 백화점 三越이 서울에 2,300여 평의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개업하였고, 丁子屋, 三井, 平田 등의 일본인 백화점도 일찍부터 전국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경영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인 백화점 和信도 1932년에 東亞百貨店을 합병하여 업세를 키워가고 있었다. 백화점들은 상품권 발행, 대매출 실시, 출장·방문판매 실시, 경품 제공, 무료 배달 등의 새로운

70) 서북협성학교 설립에는 당시 서북학회 회원이었던 안창호도 관여하였다. 협성실업학교는 光新七十年史編纂會 [72] 참조.

71) 金麗植 [87], 19~20쪽, [86], 2~4쪽.

72) 협성실업학교와 동우회의 관계는 후술하는 동우회사건과 관련하여 교장 김려식을 비롯하여 許然, 金興濟, 李鐘洙, 李翊殷, 金用鉞, 韓昇寅 등 교사 7명이 구속되었던 사실에 비춰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73) 사적으로는 한승인의 절친한 친구였던 허연과 임정기가 협성실업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표 1〉 민족별 설립 회사수 및 자본금(1935~1937년)

구분	1935년		1936년		1937년		합계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회사수	104	148	107	140	81	72	292	360
공칭자본(천원)	1,352	8,978	1,654	4,218	1,649	5,548	4,655	18,744
평균자본(원)	12,897	60,665	14,120	30,121	20,361	77,057	15,757	55,948

자료 : 韓昇寅 [25], 5회.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쟁탈에 열을 올렸고 그럴수록 중소기업들은 경영에 더욱 곤란을 겪었다. 이에 한국인 중소기업들은 물산장려운동에도 참여하고 反百貨店運動에도 나서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지만 문제는 점차 심각해졌고, 급기야 총독부도 좌시할 수만은 없어서 백화점들의 상품권 발행을 규제하고 영업에 관한 규제안을 만들어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었다.⁷⁴⁾

이렇듯 백화점에서 비롯된 한국인 상권의 축소와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한국인 상인들과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을 증폭시켰다. 전술하였듯이 한승인은 이미 미국유학시절부터 첨단업자본과 그들의 경영전략, 판매전략을 목격하면서 중소기업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았다.

그는 먼저 당시의 중소기업문제를 일본인 대상인 對 한국인 중소기업들 간의 문제라고 보았다. 즉 '韓國人 商人 = 中小商業資本, 日本人 商人 = 大商業資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다. 〈표 1〉과 〈표 2〉는 그것을 잘 보여 준다.

〈표 1〉은 官報를 통하여 그가 직접 조사한 내용으로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3년 동안 신설된 株式, 合資, 合名會社 중에서 商業會社의 민족별 자본액이다. 주목할 점은 한국인 상점의 평균자본액이 일본인 상점의 그것보다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매출액에서도 한국인 개인상점의 대부분은 2천원 이하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74) 오진석 [134].

〈표 2〉 매출액 기준 민족별 개인·법인상점(1935년)

구 분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합 계		
		A	A/E/F	A/D	B	B/E/F	B/D	C	C/E/F	C/D	D	D/E/F	D/D
개인 상점	천원~2천원	2,085	45.6	79.1	408	16.6	15.4	142	35.9	5.3	2,635	35.5	100.0
	2천원~3천원	482	10.5	68.2	185	7.5	26.2	39	9.9	5.5	706	9.5	100.0
	3천원~5천원	621	13.6	57.6	377	15.3	35.0	79	20.0	7.3	1,077	14.5	100.0
	5천원~만원	679	14.9	50.8	573	23.3	42.9	82	20.8	6.1	1,334	18.0	100.0
	만원 이상	703	15.4	42.0	916	37.3	54.7	53	13.4	3.1	1,672	22.5	100.0
	합계(E)	4,570	100.0	61.6	2,459	100.0	33.1	395	100.0	5.3	7,424	100.0	100.0
법인 상점	3천원 이하	-	-	-	10	2.8	100.0	-	-	-	10	2.6	100.0
	3천원~5천원	4	11.8	16.6	20	5.7	83.3	-	-	-	24	6.1	100.0
	5천원~만원	6	17.6	13.9	35	9.9	81.3	2	33.3	4.6	43	11.0	100.0
	만원 이상	24	70.6	7.6	287	81.5	91.1	4	66.7	1.2	315	80.4	100.0
	합계(F)	34	100.0	8.7	352	100.0	89.8	6	100.0	1.5	392	100.0	100.0

주 : A, B, C, D의 단위는 개, 나머지는 %임. 비율은 필자의 계산임.

자료 : 韓昇寅 [38], 9~10쪽.

자본금의 영세성이 매출의 영세화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자본이 영세하므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방도를 구비하기가 어렵고 상점의 경영관리, 상업술도 “時代에 順應”하지 못하고 뒤떨어진다는 것이었다.⁷⁵⁾

그러나 그가 판단하건대 중소기업문제, 즉 한국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 압박은 단지 자본금의 영세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이러한 요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에서 출구를 찾고자 하였다.

자본축적과 임의연쇄점 :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문제의 원인은 일본인 대재벌의 진출과 대상업자본의 ‘統制販賣’ 때문이었다. 소수의 일본인 대재벌이 상품의 생산을 장악하고 그 판매까지 통제할 다음 가격을 “무리한 수준까

75) 韓昇寅 [26].

지 貴騰”시키거나 “생산비 이하로 펴핑”하여 한국인 중소기업자의 “販路를 劇奪”하고 진입을 “極限으로 局限”하고 있었던 것이다.⁷⁶⁾ 그는 대상업자본으로서 백화점과 연쇄점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백화점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는 한편 편리한 부대시설과 무료배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로써 고객흡수에 열을 올려 중소기업인을 위협하고 있었고, 연쇄점 중에서 직영연쇄점은 한 경영주체가 2개 이상의 상점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경영함으로써 대규모 경영의 이점을 발휘하여 가격을 낮추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⁷⁷⁾

따라서 그는 자본이 영세한 한국인 상인들로서는 자본축적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인 상업자본이 영세한 이유로서, 한국인 상인들의 자본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행들이 부동산 저당을 받지 않아서 필요자금을 차입하기 어렵고, 한국인들은 근검저축성이 박약하고 사치성이 농후하여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가 한국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金庫 설치를 제안한다든가⁷⁸⁾ 한국인 상인들에게 과도한 經營費 지출을 개선하여 자본축적을 도모하자고 역설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⁷⁹⁾

그러나 중소기업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승인은 독립적인 단위상점들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서로 협동하여 직영연쇄점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각 상점의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는 任意連鎖店(voluntary chain store)을 중소기업문제에 대처하는 방도의 하나로서 제기하였다.⁸⁰⁾ 協同工作을 통한 ‘공동구매, 공동광고, 공동창고, 공동배달, 공동연구’를 행하여 백화점, 직영연쇄점과 같은 대상업자본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화신이 1934년 6월에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표방하며 임의연쇄점 사업에 진출하였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⁸¹⁾

76) 韓昇寅 [26], 35쪽, [30], 10~20쪽, [25] 7회.

77) 韓昇寅 [36], 84~92쪽, [27], 194쪽.

78) 韓昇寅 [26], 38쪽.

79) 韓昇寅 [35], 105쪽.

80) 韓昇寅 [26], 196쪽, [36], 91~92쪽.

81) 오진석 [134].

구매력 증진과 협동조합 : 그러나 중소기업문제가 상업진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 중소기업문제의 원인 중에는 1920년대 이후 계속된 불황도 한몫하고 있었으므로 농촌의 구매력이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상업진흥은 있을 수 없었다. 한승인은 중소기업문제가 결국은 농업·농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⁸²⁾

일제 강점하, 특히 1920년대 이후 한국의 농촌은 미가의 정채와 공산품의 가격 등귀에 의한 鉅狀價格差, 窮迫販賣, 소작농의 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었고, 지주와 소작인 간의 계급대립으로 소작쟁의가 빈발하였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간도, 만주 등으로 유리하고 있었다.⁸³⁾ 농촌을 갱생시키고 계급대립을 완화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었고, 한승인은 그러한 방도의 하나로서 협동조합 건설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 역사와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에 착수하였다.⁸⁴⁾

그러한 작업의 결과 그는 우리 실정에 맞는 완성된 형태의 협동조합론을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다져 나갔다.⁸⁵⁾ 먼저 그는 협동조합을 '소비자들이 일정한 생활상 필요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일정한 근본원칙에 따라 각 조합원들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는 組合'으로 정의내렸다.⁸⁶⁾ 商事會社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되고 경영성과가 분배되는 방식이지만, 협동조합은 "개인을 표준"으로 자본금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투표권만을 허락하며 剩餘貯蓄을 분배할 때도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아닌 거래고에 의해서 분배하는 방식이므로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협동조합운동이 資本主義의 私有財産制度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82) 韓昇寅 [27], 192~193쪽, [28], 31~32쪽.

83) Warren Hahn [57].

84) 韓昇寅 [10], [17], [18], [19], [20], [21], [22].

85) 한승인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을 살피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나름의 협동조합론을 구상하려 하였지만, 「東光」의 폐간으로 인하여 작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

86) 韓昇寅 [17], 32쪽.

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공산주의가 ‘政府中心’의 ‘革命的’ 내용이라면 협동조합운동은 ‘個人中心’의 ‘進化的’ 내용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운동을 “經濟的 改良運動”의 일환으로서 간주했던 것이다.⁸⁷⁾

그러나 한승인은 일제가 추진하는 협동조합운동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제가 만든 금융조합이 협동조합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구미의 信用組合과 비교해 가면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⁸⁸⁾

먼저 구미의 신용조합은 민중의 자각에서 發源하여 “自立自存의 主義”로 발전하였지만, 일제의 금융조합은 관에서 먼저 법률을 공포하고 설립되어 계속 “엄중한 감독”을 받고 있었다. 둘째, 구미의 신용조합은 그 설립자가 민중이기 때문에 그 업무집행도 “自治的”이었지만, 일제의 금융조합은 조합의 이사도 관선이며 주요사업과 정책도 “官이 決定”하였다. 셋째, 구미의 신용조합은 자본보다 “人格을 本位”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거래액에 의해서 잉여금을 분배하지만, 일제의 금융조합은 “출자고를 표준”으로 삼고 있어서 商事會社와 다를 바가 없었다. 넷째, 일제의 금융조합은 중소농민의 신용을 본위로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오히려 一般銀行에 “近似한 기관”이었다. 다섯째, 구미와 일본에서는 신용조합을 협동조합의 일부로 보아 協同組合法에 의거하여 설립하였으나 한국에서는 金融組合을 따로 제정하여 설립하였다.

이러한 비판의식에 기초하여 한승인은 민간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조합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에 의한 이사 선출, 거래액에 의한 잉여금 배당, 一口출자금(10원) 인하, 대부이자율 인하 등이었다.

한편 한승인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진행상황, 세부내용 등도 자세히 살폈다.⁸⁹⁾ 당시 세계 각국은 협동조합운동에 적극 매진하여 덴마크에서는 협동조합원이 인구의 40%, 러시아에서는 28%, 영국에서는 14%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협동조합의 종류도 소매업, 도매업, 제조업, 금융업

87) 韓昇寅 [10], 8회.

88) 韓昇寅 [32].

89) 韓昇寅 [19], [20], [21], [22].

에서부터 보험, 요리점, 출판, 오락, 세탁소, 운송교통, 주택, 건강보존, 기타 수력, 소방, 법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⁹⁰⁾ 일본도 이미 1900년경부터 産業組合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⁹¹⁾ 특히 한승인은 로취데일에서 시작한 영국의 소비조합과 독일의 슐츠·델리만 신용조합, 라이파이슨 신용조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독일의 신용조합 분석은 앞서 언급한 그의 총독부의 금융조합 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석이 되었다.

그런데 한승인은 영국의 소비조합으로서 1844년에 로취데일에서 형성된 公平開拓者協同組合(Equitable Pioneers Cooperative Society)을 “과학적 원칙을 俱存하고 일어난 英國協同組合運動의 嚆矢”로서 높이 평가하였다.⁹²⁾ 소비조합에서 시작한 영국의 협동조합운동은 農業組合, 生産組合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승인은 이러한 생산조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생산조합의 원칙은 원래의 협동조합 원칙과 달라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발전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生産組合은 협동조합이 가진 독특한 3대 원칙(과학적 원칙:인용자)에 비하여 본다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협동조합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이상이 협동조합의 그것과 상이한 점이 많다고 할 뿐이다. 생산조합은 19세기 중엽에 영국 基督教社會主義者들이 당시에 불란서에서 성행하는 勞動者協會의 理想을 많이 본받아 가지고 설립한 것이니……그후에 각처에서 雨後竹筍 모양으로 일어났으나 그중의 대다수가 이러타고 할만한 성공을 일워 보지 못하고 그만 그 종적을 감초아 버렸다.⁹³⁾

한승인은 1849년에 영국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세웠던 生産組合의

90) 韓昇寅 [17], [18].

91) 일본의 ‘산업조합법’ 내용은 佐藤達夫·峯村光郎 [152] 참조.

92) 그가 말한 과학적 원칙이란 이른바 ‘로취데일의 3대 원칙’으로서, 첫째, 각 조합원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둘째, 출자한 자수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할 때에는 일정한 최저 이자로 정하며, 셋째, 모든 경영비를 제하고 잉여저축이 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거래고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것이다.

93) 韓昇寅 [19].

유형을 ① 조합에 참가한 노동자들끼리 자금을 출자 생산하고, 노동자중에서 지배인, 간부를 선발하여 조합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익은 평등하게 분배하는 勞働者 本位의 組合, ② 위의 조합과 성질은 동일하지만 지배인, 간부가 영구히 留任하는 경우, ③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支配人, 監督을 雇聘하는 경우, ④ 조합 밖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금을 공급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조합의 주주로서 참가하도록 장려하기는 하지만 조합을 지배할 권리는 주지 않는 경우의 넷으로 나누었다.⁹⁴⁾ 그리고 각 유형마다 실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첫째, ①, ②의 경우는 일부 노동자들이 “어떠한 생산부문이나 기관을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자들이 경영을 맡기에는 기술과 관리문제에 너무 “無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③의 경우 노동자들이 조합을 잘 유지하지 못하며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支配人, 監督을 雇聘”해도 노동자들이 嫉妬하거나 “意見이 不睦”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셋째, ④의 경우 조합이 “일부 자본가의 手中”으로 들어가기 쉽고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일종의 營利事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생산조합의 발전이 부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생산조합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주지하듯 일제하 농업문제 타개방안 중에서 地主的 立場의 논자들은 협동조합운동을 자본주의적 협동조합운동으로 그치려는 반면, 農民的 立場의 논자들은 협동조합운동을 생산조합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⁹⁵⁾ 한승인은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생산조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地主的 立場’에서 있었다.

경영관리의 개선 : 한편 한승인은 중소기업문제 원인의 하나로서 ‘한국인 중소기업의 無能’을 매우 강조하였다. ‘경험 부족’과 짐작에 맡기는 原始的 經營方法,⁹⁶⁾ 서비스정신의 부족⁹⁷⁾과 廣告宣傳에 대한 무관심⁹⁸⁾ 등 그가 보기에 한국

94) 韓昇寅 [19].

95) 金容燮 [123].

96) 韓昇寅 [27].

97) 韓昇寅 [43].

인 상인들의 경영법은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 경영”에 지나지 않았다. 상업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부족, 잘못된 상업관, 研究性과 向上心의 부족, 상업에 대한 취미와 애착심 부족, 협동정신의 박약, 비조직적·비체계적 경영 등도 큰 문제였다.⁹⁹⁾ 그는 일본인과 한국인 상점의 매상고 대비 경영비와 순이익의 비율을 實地調査하여, 한국인 상점의 경영비 비율은 18~20%이지만 일본인 상점은 10~12%이며, 한국인 상점의 순이익 비율은 2~4%이지만 일본인 상점은 13~15%라는 사실을 밝혔다.¹⁰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 상점이 일본인 상점에 비해 경영비 비율이 높고 순이익 비율이 낮다는 점은 상점관리의 비합리성, 원시적 경영에 기인하는 바이라며 재삼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유학중에 테일러(Frederick W. Taylor)의 科學的 經營(scientific management), 合理的 經營(rational management)에 의하여 産業合理化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공황을 극복하고 있었던 미국의 경제상황을 지켜 본 적이 있었던¹⁰¹⁾ 한 승인은 중소기업문제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서는 ‘한국인 상인의 무능’을 꼽았다. 그러한 그의 인식은 다음 발언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 중소기업자들이 자기들의 更生을 絶叫함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이 있다. 하나는 너무도 정부를 依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疲弊하여진 책임을 너무도 남(例하면 百貨店, 産業組合 등)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리하여 걸핏하면 위정자에게 진정서를 드리는 것과 시위를 행하는 것으로 常套手段을 삼게 되고 혹은 反백화점 反산업조합운동으로 만사를 해결할 듯이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그 반면에 있는 자기자신들의 결함을 간과하게 된다. 필자의 관찰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도리히 그들의 更生에 큰 장애가 되지 아니할까도 생각한다. 전 미국상무차관 클라인박사는 어떤 상업조합대회석상에서 「商店開鎖原因의 3할은 店主자신의 무능력에 있다」라고 언명한 바가 있거니와 조선중소상공업자의 실패원인은 그 3할 이상이 소상공업자 자신의 무능력에 있지 아니할까? 故로 중소기업의

98) 韓昇寅 [29].

99) 韓昇寅 [25], 6회.

100) 韓昇寅 [28], 31쪽.

101) 韓昇寅 [13], 33~34쪽, [27], 195쪽.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당시 미국유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金度演 [85].

진정한 更生途는 첫째로 자기의 고유한 결점을 고치는데 있고 둘째로 商業組合, 工業組合 기타 방법으로 실시되는 合理的 統制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¹⁰²⁾

이처럼 일제하 중소기업문제의 원인을 韓國人 商人의 無能에서 찾았던 것은 동우회의 실력양성과 민족개조 이념을 흡수하여 정립한 그의 경제인식 체계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동우회의 핵심단원이었던 이광수는 국권의 상실을 민족성이 잘못된 탓으로 여기면서 ‘德體智의 三育과 富의 蓄積, 社會奉仕心의 涵養’ 등을 통한 자기수양, 문화운동을 통한 민족성 개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오던 터였다.¹⁰³⁾ 한승인 역시 이러한 이념적 토대 위에서 있었으므로 중소기업문제 원인을 상업구조에서 찾기보다는 한국인 상인의 무능에서 찾고 이를 강조했던 것이다.¹⁰⁴⁾

그가 주장하였던 한국인 상인의 ‘質的 改善’ 방안의 첫째는 원시적인 주먹구구식의 경영방식을 타파하는 “合理的 改良”, 즉 經營管理의 改善이었다. 한승인은 상점 경영관리를 ‘調査 研究, 經營要素의 集合, 資金 調達, 營業 開始’의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¹⁰⁵⁾ 먼저 1단계에서는 시장의 성질, 구매의 방도, 구매력의 정도, 경쟁의 강약, 장래의 발전성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이익률을 판단한 뒤에, 2단계에서는 적절한 위치선택, 관청의 인가획득, 인재 모집, 설비, 원료상품 구매 등 경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하고, 3단계에서는 가옥건물, 기계기구 같은 고정자본 외에 넉넉한 활용자금을 확보하여, 4단계에 들어서 비로소 영업을 개시해야 된다는 논리였다.¹⁰⁶⁾ 말하자면 시장성과 수익성이 충분한 사업을 선택하여 경영에 필요한 요소들과 자금을 확보한 후에야 영업하도록 권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

102) 韓昇寅 [38], 17쪽.

103) 李光洙 [99], 18~72쪽, 임채승 [140], 27~31쪽, 서중석 [130].

104) 단편적인 글이지만, 이광수도 한국인 상인의 태도 중 불친절, 속임수, 無誠意, 상품의 품질·종류·수량의 부족, 점포의 미관 부족을 지적하고 일본인 상인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李光洙 [100](최초 발표는 「조선일보」, 1933. 9. 22).

105) 韓昇寅 [40], 128~133쪽, [25], 8회, [42].

106) ‘4M의 調和, 즉 인물(Men), 금전(Money), 상품(Merchandise), 관리(Management)의 조화’를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위 논리의 세련된 표현에 불과하였다. 韓昇寅 [26].

로는 부족하고 상인은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¹⁰⁷⁾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재빨리 구매하여 상점에 진열하고, 광고선전을 통하여 상품을 널리 알리는 한편, 새로운 영업전략, 예컨대 상품권 발행, 대매출, 방문판매, 전람회 개최, 무료배달, 경품 증정 같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¹⁰⁸⁾ 이것이 바로 그가 미국유학시절 배웠던 이른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의 요체였다. 이와 함께 그는 상인들의 낭비적 생활과 과도한 접대비 지출 등을 질타하며 사치적, 낭비적 태도를 개선하여 경영비와 시간을 절약할 것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할 ‘商店繁昌의 秘策’이라는 주장이었다.

상업도덕의 전환 : 한승인이 질적 개선 방안의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올바른 ‘商業道德의 확립’이었다.¹⁰⁹⁾ ‘昔日의 상업도덕’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여 “속여서 파는 것쯤은 常事”라거나 “상업이란 점포를 설치하고 싸게 산 상품을 비싸게 팔면 된다.”고 하는 “單純한 商業觀”¹¹⁰⁾이었지만, ‘今日의 상업도덕’은 상인이 정직과 신용을 지켜야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인 상인들은 ‘부정한 광고, 에누리, 비신용, 불친절’ 등 ‘昔日의 잘못된 상업도덕’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商業觀의 轉換’을 촉구하였다. 특히 한승인은 잘못된 상업도덕의 예로서 에누리나 부정한 광고를 지목하고 정찰판매와 정직한 광고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는데¹¹¹⁾ 이는 이광수나 동우회에서 상인의 신용을 강조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¹¹²⁾

상업교육과 종업원 훈련 : 한국인 상인의 질적 개선이 경영혁신이나 상업도덕의 전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商業教育과 從業員의 訓練이 필요하였다.¹¹³⁾ 아무리 “서비스 全盛時代”를 강

107) 韓昇寅 [35], 100~105쪽.

108) 韓昇寅 [35], [43], 184~189쪽.

109) 韓昇寅 [44], 103~107쪽, [45], 39~43쪽.

110) 韓昇寅 [29], 82쪽.

111) 韓昇寅 [29], 82쪽, [44], 106쪽.

112) 李光洙 [101], 徐椿 [92]. 서춘은 동우회원은 아니었지만 이광수의 오산학교 제자로서 이 시기 대표적인 경제적 실력양성론자의 한 사람이었다.

조해도 종업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¹¹⁴⁾ 이에 한승인은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에서부터 가졌던 노자협조에 의한 자본가의 '온정주의적 노무관리'에 기반하여 종업원에 대한 임금인상, 노동시간 축소,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업원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상업도덕, 서비스, 판매전략을 주입시킬 것을 자본가들에게 충고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상업교육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였다.¹¹⁵⁾ 새로운 경영기술을 습득한 인재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지만 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보고서, 학교내에 '實習設備'을 만들고 상점, 회사와도 연락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의 경험과 기술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가 협성실업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체험에 기초한 것이었다.

요컨대 중소기업문제를 백화점, 연쇄점 등 대사업자본의 진출에 의한 것보다는 한국인 상인의 '無能'에 있음을 강조한 한승인으로서, 해결방법에서도 임의연쇄점, 협동조합 조직 등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그보다는 한국인 상인의 '質的 改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게 임의연쇄점이나 협동조합은 크게 보아 한국인 상인의 '질적 개선' 방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의 중소기업 문제 해결방안이 '백화점 규제를 위한 百貨店法, 중소기업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商店法, 새로운 상업조직인 商業組合 시행' 등을 주장한 중소기업의 입장보다는 大商人의 입장에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동우회의 민족개조, 실력양성론의 이념을 체득하여 '民族改良主義的 經濟認識'을 체계화하였던 데에서 나온 사상적 귀결이었다. 그러나 민족개조론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간과한 채 개인의 품성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려 하였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그의 중소기업문제 인식과 해결방안도 상업구조보다 상인의 능력에 초점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 시기 경제문제의 본질을 흐릴 염려가 있었다.

113) 韓昇寅 [25], 8회, [43], 184~189쪽.

114) 韓昇寅 [29], 78~79쪽, [43], 188~189쪽.

115) 韓昇寅 [25], 6·8회. 동우회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통속교육보급회를 설립하였는데, 한승인은 이광수, 허연과 더불어 이 단체의 이사였다. 李顯求 [63], 216쪽.

3. 전시통제기 同友會의 해산과 굴절

한승인은 홍사단, 동우회를 통하여 민족개조론, 실력양성의 이념을 흡수하고 이를 자신의 경제인식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추구하려 했던 일제하 경제적 실력양성론자로서 '민족개량주의 경제인식'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우회와 한승인의 경제적 실력양성론은 전시통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탄압과 동우회원의 분화로 인하여 사그라지고 말았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국을 전시동원체제로 편성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급변시키는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內鮮一體, 皇國臣民化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 障礙가 되는 사상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일차적인 대상은 社會主義思想이었겠지만 민족의 힘을 길러 독립을 준비한다는 동우회의 '온전한' 실력양성, 민족개조 사상도 용납할 수 없었다. 탄압은 1937년 6월 7일 동우회원 15명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¹¹⁶⁾ 이후 동우회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어 1938년 3월까지 안창호를 비롯한 181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8월에 41명이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비록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는 있었지만 재판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들은 1941년 5월 3심공판에서야 겨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¹¹⁷⁾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오랜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동우회는 해산되고 회원들은 뿔뿔이 분해되고 말았다. 특히 도산이 1938년 3월 병원 입원 도중에 사

116) 동우회사건은 한승인 [4], 제6장, 김윤경, "동우회수난기", [78], 87~98쪽, "同友會事件", 「思想彙報」 24, 1940. 9, "동우회사건재판기록", [75], 1282~1433쪽, 김상태 [121], 趙培原 [141] 참조. 비슷한 시기 홍업구락부, 청구구락부, 물산장려회도 해산당하였다(서중석 [130], 216쪽). 일제의 동우회 탄압 원인을 해외운동세력과의 연계, 기독교세력 배경,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등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김상태 [121]).

117) 1939년 10월 제1심공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상고하여 1940년 7월 제2심공판에서는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때 한승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36명이 상고하여 1941년 5월 제3심공판에서는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망하면서 그 속도는 가속화하였다.¹¹⁸⁾ 일부는 체제내로 완전히 편입되어 일제의 전시동원체제 구축과 大東亞共榮圈 구축에 앞장섰다. 동우회의 핵심회원이었던 이광수와 주요한은 일제의 창씨개명에 호응하여 성명을 香山光郎, 松村紘一로 고쳤고, 1938년 11월에는 동우회사건 보석출소자의 思想轉向會議를 주도적으로 소집하여 일제의 전향정책을 지원하였다.¹¹⁹⁾ 그들은 언론에 內鮮一體, 皇國臣民化 등을 주장하는 논설을 기고하고, 임전보국단, 문인협회 등의 전시통제단체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일제의 전시통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¹²⁰⁾ 하지만 고문후유증과 오랜 재판으로 인한 가산 탕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절필이나 은문을 택한 동우회원도 있었다.

한승인은 이광수, 주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일제의 사상 탄압, 경제적 수탈에 정면으로 반발하지도 못한 채 전시말의 파편화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¹²¹⁾ 그는 일제의 창씨개명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姓을 西原으로 고쳤고,¹²²⁾ 1942년 2월에는 생활고를 못 이겨 화신백화점에 다시 취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화신은 이미 일본인 백화점에 맞서 상권을 수호하는 ‘民族百貨店’으로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전시통제경제체제하에서 일제의 경제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구축에 의한 경제적 과실을 누리고 있었다. 중역진들의 체제편입도 가속화하였고 1944년에는 급기야 군수기업인 朝鮮飛行機工業(株)을 설립하여 일제의 전쟁수행을 지원하고 있었다.¹²³⁾ 안창호와 동우

118) 감옥에서 도산의 사망 소식을 접한 한승인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동우회와 실력양성론을 지탱하고 있던, 그리고 자신을 정신적으로 곧추 세워주었던 큰 軸을 상실했던 것이다. 한승인 [3], 15~22쪽 참조.

119) 趙培原 [141], 72쪽. 1938년 11월 3일 동우회원 28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사상전향회의에서 이들은 신사참배, 국방헌금과 ‘천황을 위한 만세삼창’을 행하고 “皇恩에 忠義”를 다하고 “國策遂行에 最善의 努力”을 할 것을 다짐하는 ‘轉向表明書’를 발표하였다. 한승인도 이 회의에 참여하고 국방헌금 50원을 헌납하였다. <동우회사건 보석출소자의 사상전향회의 개최에 관한 건[京高特秘 제2494호](1938. 11. 5)>,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74], 1028~1035쪽.

120) 이광수, 주요한의 일제말 행적은 반민족연구소 엮음 [147] 참조.

121) 한승인은 훗날 일제말 이광수, 주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고참제자들 중 특히 이광수, 주요한 등이 저지른 친일행동은 큰 과실이요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한승인 [3], 74쪽.

122) 한승인은 이를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한승인 [3], 151쪽, [7], 174쪽.

회가 주장하던 실력양성을 위한 민족적 기업경영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화신에서 그는 해외무역 판로개척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²⁴⁾ 일제말 한승인의 경제적 실력양성론은 이 정도에서 이런 형태로 귀착되었던 것이다.¹²⁵⁾

IV. 미군정기 政治路線과 경제인식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고 9월에 미군이 주둔하여 軍政이 시작되자 한승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던 자신의 정치·경제인식을 기반으로 新國家建設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우선 9월 초에 한·미 양 국민의 친선과 경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구미유학생과 국내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설립한 韓美協會에 참여하여 이사가 되었고,¹²⁶⁾ 군정장관 하지가 9월 중순경에 미국유학생 출신들의 모임을 소집하자 여기에도 참석하였다.¹²⁷⁾ 이와 함께 김성수를 위시한 우익진영 인사들이 모여 韓國民主黨을 결성하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¹²⁸⁾ 일제하에 흥사단·동우회에서 활동하였고, 이른바 민족주의 우파진영의 인물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아 왔던¹²⁹⁾ 그가 해방 이후에 이들과 정치적 행로를 같이

123) 오진석 [134].

124) 韓昇寅 [46], “동남아세아 무역행각기”, [7], [6], 4장 참조. 한승인과 정치적 행로를 같이 했던 오천석도 이 시기 화신에 취직하여 동남아시아에 다녀왔었다. 吳天錫 [97].

125) 비록 엄혹한 사상탄압이 계속되었던 전시말의 글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가 당시 여행했던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스케치하면서 자신이 승선한 배에 “共築圈建設의 聖職에 봉사”하기 위해서 “큰 포부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가는” 동남아인들로 만원이었으며, 여러 건물과 시설들을 목도하고서 한때 “利敵의 목적”이었던 시설들이 “我皇軍의 手中”에 들어온 것은 “大東亞의 明朗化를 위하여 크게 기뻐할 바”이며, “鐵甕城같은 皇軍의 堅陳”을 보고서 “一路平安”을 確信하였다고 한 발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韓昇寅 [46].

126) 崔永禧 [68], 21쪽, 李勳求 [105].

127) 한승인 [2], 9쪽.

128) 沈之淵 [132], 199쪽.

129) 일제말에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은 차상달, 유진오, 독고선, 흥난파, 오천석, 허연, 이관구, 박원규, 조병옥 등이었다. 한승인 [4], 207~211쪽.

했던 것이다.

특히 한미협회는 북미유학생총회에서 활동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미군정에 자신들의 견해를 제기하는 한편, 미군정의 각종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나아가 임원들을 비롯한 회원의 상당수는 미군정청의 주요 관리로서 활약하고 있었다.¹³⁰⁾ 한미협회 회장인 李勳求是 농무부장이었고, 주요 임원이었던 李東濟는 조선생활품영단 이사장, 金容澤은 재무부 차장, 金泰善은 수사국장, 李大偉는 노동부장, 崔承萬은 문교부 교화국장 등을 맡고 있었다. 한미협회에 참여하여 이사직을 수행하였던 한승인도 이를 계기로 미군정에 참여하여 상무부 상무국장이 되었다. 그는 미국유학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생리를 터득하였고 미군들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英語를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난'을 겪고 있던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당시 미군정에는 그가 미국유학시절부터 친교를 맺었던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¹³¹⁾ 유학시절 그와 동고동락했던 오천석이 문교부 차장, 이묘목이 군정장관의 통역이었고, 북미유학생총회에서 같이 일했던 이훈구가 농무부장, 김훈이 농무부 차장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홍사단·동우회 출신 인사들도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오천석, 이묘목, 김훈, 이대위 이외에도 정일형은 인사행정처장, 이용설은 후생부장, 오정수는 상무부장, 조병옥은 경무부장을 맡고 있었다.¹³²⁾ 일제강점기부터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김성수와 송진우는 군정청의 고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큰 어려움 없이 경제관료로서 중책이었던 상

130) 한미협회의 임원진은 회장 李勳求, 부회장 張勉, 이사장 李東濟, 상무이사 겸 사무국장 李哲洛, 이사 겸 재무부장 金容澤, 이사 金泰善, 이사 韓昇寅, 참의원 겸 사교부장 李大偉, 평의원 崔承萬 등으로 구성되었고,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는 지부를 두었다. 「韓美協會本部任員陣容」, 「亞美理駕」 2-1, 1947. 3, 3~4쪽. 회칙은 「韓美協會會則」, 「亞美理駕」 2-1, 1947. 3, 103~104쪽 참조.

131) 한승인 [4], 223~235쪽 참조.

132) 오정수는 평남 강서출신으로서 평양 광성학교, 서울 경신학교를 거쳐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사단·동우회에서도 활약하였다. 아마도 한승인이 상무국장이 된 데에는 오정수와 의 인연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춘섭 편저 [59], 163~175쪽 참조. 이외에도 미군정에 참여한 홍사단계열인사로는 金用鉞(사법부 총무국장), 盧鎮高(대법원 대법관), 田榮澤(문교부 재직), 申東起(비서처 고문), 朴泳鎬(공보부 총무국장), 吳翊殷(농무부 재직) 등이 있었다. <興土團友 國內在籍者(1947. 11)>,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73], 406~418쪽.

무국장에 임명될 수 있었다.

한승인이 상무국장에 임명될 당시에 한국의 경제계, 특히 상업계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해방후 미군정은 일제의 통제경제, 배급통제정책을 철폐하고 기본적으로 각종 물품의 자유거래를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여,¹³³⁾ 1945년 10월 5일에 일반고시 제1호를 통해 미곡의 자유거래를 인정하였고, 10월 20일에는 일반고시 제2호를 통해 담배, 소금, 인삼, 사탕, 아편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일반상품의 자유매매를 인정하였다. 각종 물품의 자유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은닉되었던 물품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되자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듯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거 증발한 통화량과 원료부족, 일본인 기술자 철수로 인한 국내 산업의 생산력 저하 때문에 생필품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물가는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일부 상인들의 買占賣惜과 粗惡品 유통은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겼고, 경향각지에서 '소비대중의 호주머니를 강탈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모리배를 소탕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¹³⁴⁾

따라서 각종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저물가 유지를 위하여 국내 상업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던¹³⁵⁾ 한승인으로서는 이들 모리배의 발호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계기로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 상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한국인 상인들은 신용도 없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잘못된 상업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관리도 낙후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였다. “자기의 私腹만을 채우려고 하는 惡性 謀利輩가 내가 만나 본 사람중의 약 8할”이라는 그의 발언은 단적인 예였다.¹³⁶⁾ 그리고 그는 당시 혼란한 경제계의 원인의 대부분을 모리배 중간상인들의 탓으로 돌렸다.

133) 이하 미군정의 배급정책은 별다른 주가 없는 한 [61], 26~29쪽, 許洙 [143], 金點淑 [124] 참조.

134) [110], 趙許林 [111], 全弘鎭 [108], 吳基永 [95], 「東亞日報」, 1946. 2. 9 사설, 1947. 2. 4. 7. 25 사설. 1947년 한 해 동안 中央物價監察處에서 적발한 모리행위만 총 952건, 금액 약 3억원에 달하였다. 「朝鮮日報」, 1947. 12. 25.

135) 吳禎洙 [96], 10~11쪽.

136) 韓昇寅 [48], 39쪽.

원래 중간상인의 충실한 직무라는 것은 생산자의 제조품을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윤으로써 민활하게 공평하게 배급하는데 잇는 것이니 이 천직을 다하지 못하는데서 중간상인 배격론이 생기고 물가가 앙등하고 물자가 편재되고 매석이 생기고 매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조선상업계는 중간상인들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하여 좀 잘못하면 것잡을 수 없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으니 그 최악이야말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¹³⁷⁾

그의 이러한 인식은 상무국장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제하에 제기하였던 중소기업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즉 한국인 상인들의 경영실패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상업관과 '주먹구구식'의 비합리적 경영관리 때문이며, 우선 상업도덕 전환과 합리적인 경영관리 개선 같은 '질적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따라서 물자부족과 超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노력들도 주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그는 각종 마스크를 통하여 배급통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미군정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악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¹³⁸⁾ 또한 암거래, 정신판매 등 부정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나 비양심적 상인들을 계몽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조선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상업도덕향상주간을 실시하였고, 각종 강연회, 좌담회,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상인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다.¹³⁹⁾

그러나 당시 유통업계의 혼란은 이러한 정도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를 방관할 경우 미군정 전체의 위기로 번질 조짐이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으로서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경찰, 검찰을 통한 모리배의 검거 단속과 엄중 처벌을 약속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대법원 검사총장 李仁이 직접 나서서 수 차례나 모리배의 철저한 단속을 천명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¹⁴⁰⁾ 다른

137) 韓昇寅 [48].

138) 韓昇寅 [49], 29~30쪽.

139) [58], 26~53쪽.

140) 「朝鮮日報」, 1946. 11. 2; 「서울新聞」, 1946. 11. 2, 11. 16; 「東亞日報」, 1946. 12. 13. 수도경찰청, 경무부 수사국 특무과에서도 모리배의 검거 숙청을 약속하였다. 「東亞日

하나는 미군정 초기의 자유거래정책을 철회하고 각종 경제통제정책을 부활하는 것이었다. 1945년 10월 30일에 법령 제19호 폭리취체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여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였고, 1946년 5월 28일에는 법령 제90호 경제통제령을 발포하여 통제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조를 기반으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하여 이를 상무부를 통하여 민간에 배급하고 물자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통화량을 감소시켜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산 생필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여 1946년 7월부터 면포, 견포, 양말, 고무신, 비누, 성냥, 목재, 농구, 지류, 피혁, 시멘트 등 11종의 필수품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와 기타 대행기관을 통하여 배급하였고, 1947년 4월에는 10개 종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배급하였다.

사정이 이러하였기에 “미군정청 물품배급의 총본부”¹⁴¹⁾였던 상무부의 각급 관리들은 각종 물자의 할당과 배급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종 물자의 배급권 획득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진 상인, 기업가들로서는 상무부의 관리들이야말로 청원과 로비의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일부 모리배들과 상무부 관리들이 결탁한 부정배급, 정실배급 행위들이 끊이지 않아서 경제계는 오히려 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1947년 1월에는 상무국 상무과 衣料係長 鄭明采가 모리배들로부터 수뢰하여 정실배급하였음이 밝혀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¹⁴²⁾ 5월에는 상무부 광공국 석탄계장 金憲植이 배급물자의 부정처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¹⁴³⁾ 뿐만 아니라 고위관리들도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렀다. 1947년 10월에는 상무부 무역국장 崔萬熙가 무역업자들로부터 수뢰한 혐의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¹⁴⁴⁾ 당시 군정청 관리들과 일부 상인들의 결탁과 뇌물수수에 의한 정실배급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춤추는 모리배” 뒤에는 “북을 치는 관리”가 있

報」, 1946. 12. 20, 1947. 1. 17.

141) 한승인 [7], 192쪽.

142) 「朝鮮日報」, 1947. 1. 14, 1. 21; 「東亞日報」, 1947. 1. 21; 「京鄉新聞」, 1947. 1. 21, 1. 23; 「서울新聞」, 1947. 3. 26.

143) 「東亞日報」, 1947. 5. 10.

144) 「朝鮮日報」, 1947. 10. 11; 「京鄉新聞」, 1947. 10. 12, 10. 15. 최만희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朝鮮日報」, 1947. 12. 30.

다는 말까지 나들었던 것이다.¹⁴⁵⁾

각종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책임져야 할 상무국장 한승인으로서 이들 모리배와 군정청 관리들의 뇌물수수과 부정배급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감독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았듯이 한승인은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일부 상인들의 비합리적 경영관리와 잘못된 상업관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따라서 한승인으로서 혼란한 유통계의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자신이 뇌물수수과 정실배급, 부정배급의 주요 인물의 하나로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었다.¹⁴⁶⁾ 특히 1947년 5월에는 군정청의 고위관리들이 대거 연루된 뇌물 스캔들인 '林淸 사건'에 휘말려 큰 곤욕을 치렀다.¹⁴⁷⁾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林淸이라는 상인이 1946년 5월부터 1947년 1월까지 상무부의 물자불하 알선을 명목으로 許慶翰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1천여 만원을 편취 사기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임청은 상무국장 한승인을 비롯하여 동 부국장 鄭浣泳, 동 경제과장 朱道東, 식량영단 이사장 李東濟, 경기도 상공국장 安底漢, 방직과 통역 徐廷現, 농림부장 李勳求, 농산업국장 玄權 등 조선인 관리와 상무부 관계 미국인 고문 등에게 거액을 증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문제가 커졌던 것이다.¹⁴⁸⁾ 그렇지 않아도 물자부족으로 심각한 경제난, 물자난을 겪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군정청의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소식은 사실 여부를 떠나 큰 충격과 분노를 초래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담당 검사가 임청의 증뢰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하여 일단락

145) 姜·玄 [83], 12~17쪽, 高元燮 [84], 60~63쪽.

146) 이와 관련하여 서북청년회에서 구호물자 특배와 일부 생필품 배급제의 덕택으로 한승인을 포함한 평안도 출신 군정청 관리들의 도움을 얻어서 쌀·밀가루·옥수수·설탕·광목·알루미늄 등의 배급표를 확보한 후 이를 상인들에게 전매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당시 서북청년회원의 증언은 극히 시사적이다. 李敬南 [62], 78~79쪽.

147) 한승인은 회고록에서 상무국장시절에 각종 로비를 통하여 약간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시인하고서 회개하였지만, 林淸사건에 대해서는 —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 이를 부인하였다. 한승인 [4], 63~68쪽 참조.

148) 「東亞日報」, 1947. 5. 16, 1947. 5. 31; 「京鄉新聞」, 1947. 5. 16, 1947. 6. 29; 「朝鮮日報」, 1947. 6. 29 참조. 임청은 한승인에게 현금 215만원을 주었고, 유흥비로 24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3,000원에서 30만원에 이르렀던 다른 피의자들의 뇌물액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 당시 그의 위치를 가늠케 한다.

되었지만,¹⁴⁹⁾ 한승인의 이력에는 결정적인 오점을 남겼다.

요컨대 한승인이 상무국장을 맡고 있던 미군정기 경제계, 유통계의 혼란은 생산력이 확충되지 않은 채 물자를 수입하여 통제 배급하는 정책,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물자의 유통 측면만을 통제·관리하려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격상한제나 배급통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상인들의 상업관, 도덕이 개선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군정기 한승인의 경제문제 인식과 해결방안도 일제하와 마찬가지로의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V.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미국유학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학을 체득하고서 홍사단에서 활동하였고, 귀국해서는 홍사단의 국내지부였던 동우회에서 활동하면서 실력양성, 민족개조, 무실역행을 부르짖었으며, 해방후에는 미군정의 상무국장으로 활약하면서 남한 자본주의 국가건설에 일조하였던 한승인의 '민족개량주의 경제인식'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상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한승인은 평남 강서출신으로 어려서 고아가 되어 불우하게 보내다가 안식교도와 선교사의 도움으로 진명학교, 의명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일본에 유학하여 명치대학 전문부상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에 유학하여 풀러튼, 미주리, 콜럼비아대학을 차례로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학, 상학을 배웠던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유학시절에는 홍사단에 입단하여 민족개조, 무실역행, 실력양성의 사상을 흡수하였고, 귀국해서는 홍사단의 국내지부였던 동우회에서 활약하면서 이를

149)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무부 특무과장 李萬鍾은 수사 도중 외부 압력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피의자들의 불기소처분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朝鮮日報」, 1947. 6. 29; 「京鄉新聞」, 1947. 6. 29.

확고히 다져 나갔다. 한국인 상권의 수호를 표방하였던 화신백화점에 입사하고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여 한국인의 경제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협성실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업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그의 사상체계 이면에는 미국유학시절부터 흡수하였던 실용주의적, 개량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대공황을 목격하면서도 이를 자본주의 일반의 위기로 인식하지 않았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힘을 합한다면 이러한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른바 '노자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자본가의 온정주의적 실업대책에 기대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또한 서북출신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개조론, 실력양성론에 기반하여 당시 최대의 경제문제였던 중소기업문제와 농업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백화점을 비롯한 대상업자본의 등장으로 한국인 중소기업자본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그는 그 근본원인이 한국인 상인의 무능, 비신용, 비합리적 경영관리에 있다고 설파하였다. 따라서 근대적인 경영혁신과 상업도덕의 전환 같은 '질적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그는 농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기되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經濟的 改良運動"으로 파악하면서, 협동조합을 생산조합으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진정한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취하였다. 급격한 변화를 기피하면서 체제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내용만을 주장하였던 그의 개량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는 예였다.

그는 해방이 되어 미군정이 실시되자 상무국장으로 참여하여 남한 자본주의 국가건설에 일조하였다. 당시 필수품의 배급통제가 실시되는 상황 아래에서, 그는 상무국장으로서 물자의 할당과 배급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필수품의 배급통제를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애초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생산력 저하로 인한 물자부족에서 기인한 수급불균형을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의 배급통제만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원인이 있었지만, 일제하부터 줄곧 가져왔던 그의 인식, 즉 한

국민 상인들은 무능하고 비합리적으로 경영하며 잘못된 상업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 시기 그의 정책 실패는 '민족개량주의 경제인식'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 주었다.

미군정하에서 경제관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한승인은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 이승만에 의하여,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안창호의 홍사단·동우회 계열이 철저히 배제된 채, 새 정부의 각료진이 구성되면서 정권의 핵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1950년대 그가 駐韓經濟協助處 고문(1950. 1~1953. 11), 연희대학교 강사(1951. 4~1953. 10)를 지내고 주로 실업계에서 활약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60년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학연, 지연으로 얽힌 그의 인맥들이 집권에 성공하자 그는 다시 駐佛公使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정치활동금지법에 묶여 버렸고 결국 渡美를 선택하였다. 이후 그가 미국에서 餘生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했던 것¹⁵⁰⁾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 참고 문헌 ▣

I. 한승인의 주요 논저

1. 「東京이 불탈 때 - 關東大震災遭難記」, 大成文化社, 1973.
2. 「미국유학시절의 회고」, 한국교육도서출판사, 1977.
3. 「민족의 빛 도산 안창호」, 발행처 불명, 1980.
4. 「황혼에 새벽을 기리다」, 갈릴리문고, 1984.
5. 「독재자 이승만」, 일월서각, 1984.
6. 「민주주의의 봄」, 일월서각, 1986.
7.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일월서각, 1988.
8. “現代米國의 經濟的 地位(1~8회)”, 「朝鮮日報」, 1929. 1. 1~3. 8.

150) 최병현 [75], 328~338쪽, 한승인 [5], [6].

9. “米國資本主義의 南北아메리카征服”, 「別乾坤」 4-7, 1929. 12.
10. “愛蘭의 農村復興과 協同組合運動(1~8회)”, 「朝鮮日報」, 1930. 4. 1~9.
11. “美國에서 맛본 經驗”, 「우라키」 4, 1930.
12. “美國의 實業界 - 특히 小賣商業에 對하여”, 「우라키」 4, 1930.
13. “朝鮮實業界에”, 「우라키」 5, 1931.
14. “資本主義의 失業緩和策”, 「우라키」 5, 1931.
15. “歐羅巴의 남은 腫處 - 獨逸賠償 及 國際戰債와 米國의 立場”, 「東光」 31, 1932. 3.
16. “歐美苦學漫話”, 「東光」 32, 1932. 4.
17. “協同組合이란 무엇인가 - 世界의 協同組合運動(1)”, 「東光」 35, 1932. 7.
18. “世界의 協同組合運動(2)”, 「東光」 36, 1932. 8.
19. “英國의 協同組合 - 發達の 足跡과 特質”, 「東光」 37, 1932. 9.
20. “英國의 協同組合(續) - 協同都組合과 協同聯合會”, 「東光」 38, 1932. 10.
21. “獨逸의 協同組合運動 - 世界의 協同組合運動(5)”, 「東光」 39, 1932. 11.
22. “獨逸協同組合運動 - 世界의 協同組合運動(6)”, 「東光」 41, 1933. 1~2.
23. “實業政策論”, 「우라키」 6, 1933.
24. “米國經濟復興策의 將來와 그 難關(1~6회)”, 「東亞日報」, 1934. 1. 16~23.
25. “朝鮮商業의 過去, 現在, 將來 概觀(1~8회)”, 「東亞日報」, 1935. 1. 1~15.
26. “朝鮮商業界 現狀 及 發展性”, 「新東亞」 5-6, 1935. 6.
27. “中小商業의 發展策”, 「朝光」 1-1, 1935. 11.
28. “商業朝鮮의 一年 回顧”, 「新東亞」 5-12, 1935. 12.
29. “鍾路商街漫感”, 「朝光」 1-2, 1935. 12.
30. “朝鮮의 移入資本 及其 投資會社”, 「新東亞」 6-1, 1936. 1.
31. “사랑의 人 누린 博士”, 「朝光」 2-1, 1936. 1.
32. “金融組合과 農民”, 「新東亞」 6-2, 1936. 2.
33. “未就職 · 薄俸禮讚”, 「學燈」 23, 1936. 2~3.
34. “織物經濟論”, 「新東亞」 6-4, 1936. 4.
35. “商店繁昌의 秘策”, 「朝光」 2-4, 1936. 4.
36. “百貨店과 連鎖店”, 「新東亞」 6-5, 1936. 5.
37. “哀絶한 追憶”, 「朝光」 2-6, 1936. 6.

38. “中小商工業者の 更生途”, 「新東亞」 6-7, 1936. 7.
39. “달라반湖의 머슴사리”, 「朝光」 2-8, 1936. 8.
40.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이어”, 「朝光」 2-8, 1936. 8.
41. “美洲에 남긴 외로운 그림자”, 「朝光」 2-9, 1936. 9.
42. “商店의 組織과 政策”, 「商業界」 3, 1936. 12.
43. “商店과 써비쓰”, 「朝光」 3-2, 1937. 2.
44. “商業道德에 대하여”, 「朝光」 3-4, 1937. 4.
45. “商人의 資格”, 「白光」 5, 1937. 5.
46. “南洋을 다녀와서(1)~(4)”, 「春秋」 5-1~5-5, 1944. 1~10.
47. “朝鮮商工業 將來의 一課題(1~4회)”, 「朝鮮日報」, 1946. 8. 4~8.
48. “現下 우리 商業界의 動態(其一)”, 「再建」 1-1, 1947. 2.
49. “統制品配給에 對하여”, 「亞美理駕」 2-1, 1947. 3.
50. “經濟再建의 路線”, 「東光」 6-1, 1947. 4.
51. “美國經濟援助와 世界貿易의 展望”, 「民聲」 5-6, 1949. 6.
52. “ECA와 韓國經濟”, 「新京鄉」 1-1, 1949. 12.
53. “産業合理化에 對하여”, 「週刊經濟」 5, 1952. 8.
54. “貿易界의 危機와 그 對策”, 「週刊經濟」 12, 1952. 11.
55. “유엔의 國際貿易政策(上)-(下)”, 「週刊經濟」 18~19, 1953. 3~4.
56. “政府와 産業”, 「새벽」 3-3, 1956. 5.
57. Warren Hahn, *The Foreign Trade of Korea Under Japanese Control*, the School of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1931.

II. 자료(단행본)

58. 『江西郡誌』, 1936(『韓國近代邑誌 59』, 韓國人文科學院, 1991년에 수록).
59. 고춘섭 편저, 『정상을 향하여 - 秋空 吳禎洙 立志傳』, 샘터, 1984.
60. 金度演, 『나의 人生白書』, 康友出版社, 1968.
61. 『商工行政年報』, 南朝鮮過渡政府商工部, 1947.
62. 李敬南,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上』, 삼성문화개발, 1989.
63. 李顯求, 『島山安昌浩資料集 I』, 國會圖書館, 1997.
64. 張利郁, 『나의 回顧錄』, 샘터, 1975.

65. 趙炳玉, 「나의 回顧錄」, 語文閣, 1963.
 66. 조종무, 「아메리카대륙의 한인풍운아들」, 조선일보사, 1987.
 67. 최병현,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 뉴욕한인교회70년사」, 깊은샘, 1992.
 68. 崔永禧, 「격동의 해방3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69. 『平安南道誌』, 平安南道誌編纂委員會, 1978.
 70. 韓宗敏, 「江西郡誌」, 江書郡誌編修會, 1967.
 71. 長井善藏, 「明治大學六十年史」, 明治大學, 1940.
 72. 光新七十年史編纂會, 「光新七十年史」, 광신중 · 상업고등학교, 1975.
 73.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浩全集 7」, 島山安昌浩先生記念事業會, 2000.
 74. _____, 「島山安昌浩全集 9」, 島山安昌浩先生記念事業會, 2000.
 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76. _____, 「明治大學百年史 第二卷」, 社團法人明治大學, 1988.
 77. 明治大學百年史編纂委員會, 「明治大學百年史 第三卷」, 社團法人明治大學, 1992.
 78. 興士團史編纂委員會, 「興士團五十年史」, 大成文化社, 1964.
 79. Edmund de S. Brunner, *Rural Korea : A Preliminary Survey of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Conditions*, New York : The Report of the Jerusalem Meeting of the I.M.C, 1928.
 80. Frank D. Fackenthal, *Columbia University Alumni Register, 1754-1931*,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32.
 81. *The Korean Student Bulletin* (K.S.B.로 약칭).
 82. Thurman W. Van Metre, *A History of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 Morningside Heights, 1954.
- Ⅲ. 자료(당시 신문, 잡지 수록 저술)
83. 姜一玄, “汚吏에 대한 小論”, 「新潮」 創刊號, 1947. 4.
 84. 高元燮, “헤엄치는 汚吏들”, 「開關」 80, 1948. 12.

85. 金度演, “産業의 科學的 經營에 對한 考察”, 「우라키」 1, 1925.
86. 金麗植, “第一回卒業生을 내이면서”, 「協實」 2, 1930.
87. _____, “職業的 敎育의 必要”, 「眞生」 5-1, 1929. 3.
88. 金燾, “우리의 修養과 朝鮮의 要求”, 「우라키」 5, 1931.
89. “米國苦學의 가지가지 經驗錄”, 「우라키」 5, 1931.
90. 寶乙生, “美國大學巡歷記 - 콜롬비아대학”, 「우라키」 4, 1930.
91. “北米苦學生活百鏡集”, 「우라키」 6, 1933.
92. 徐椿, “에누리論”, 「東光」 12, 1927. 4.
93. 안승화, “The Foreign Trade of Korea(1)”, *K.S.B.*, vol. 10-1, 1932. 3, p. 4.
94. 廉光燮, “社會心理上에서 관찰한 ‘나’”, 「우라키」 4, 1930.
95. 吳基永, “謀利輩”, 「新天地」 2-3, 1947. 3.
96. 吳禎洙, “現下의 商工行政”, 「法政」 3-1, 1948. 1.
97. 吳天錫, “南洋行(1~6회)”, 「朝光」 7-2~7-7, 1941. 2~7.
98. _____, “米國留學生史”, 「三千里」 5-2, 1933. 2.
99. 李光洙, “民族改造論”, 「開關」 23, 1922. 5.
100. _____, “北村商人”, 「李光洙全集 13」, 三中堂, 1962.
101. _____, “實業과 精神修養”, 「李光洙全集 13」, 三中堂, 1962.
102. 李炳斗, “美洲留學生及留學生會略史”, 「우라키」 1, 1925.
103. _____, “北米留學生會 十年間 成功과 將來希望”, 「우라키」 4, 1930.
104. 李勳求, “朝鮮對美國貿易十年史論”, 「우라키」 4, 1930.
105. _____, “韓美協會設立의 意義와 展望”, 「亞米利加」 창간호, 1946. 9.
106. 張世雲, “米學生總會의 過去十年을 回顧하면서”, 「우라키」 4, 1930.
107. 張利郁, “留米 우리 學生들의 信仰生活經路”, 「우라키」 3, 1929.
108. 全弘鎮, “謀利輩論”, 「新天地」 1-11, 1946. 12.
109. “朝鮮商工業問題 座談會”, 「新東亞」, 1935년 6월호.
110. “朝鮮商業=商人資本 그 反動性을 直視하라”, 「朝鮮經濟」 1-1, 1946. 4.
111. 趙許林, “謀利輩論”, 「協同」 創刊號, 1946. 8.
112. 崔敬植, “衰退되는 米國의 農村”, 「우라키」 3, 1929.
113. 許然, “轉轉하는 孤影”, 「朝光」 2-6, 1936. 6.
114. 뷁르너, “農村振興運動者가 第一必要”, 「우라키」 4, 1930.

115. 三千里社調查部 編, “興土團”, 「三千里」 3-7, 1931. 7.
 116. 「東亞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서울新聞」 등 각종 신문.
 117. 「東光」, 「朝光」, 「新東亞」, 「우라키」, 「亞米利加」, 「亞美理駕」 등 각종 잡지.

IV. 연구 논저

118. 강덕상, 『조선인의 죽음 -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대학살의 진상 -』, 동쪽나라, 1995.
 119. 姜德相·琴秉洞 編, 『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87.
 120. 김기승,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연구』, 신서원, 1994.
 121. 김상태, “1920~19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 연구”, 『韓國史論』 28, 1992.
 122. 김양선, “3·1운동과 기독교계”, 『3·1운동50주년기념논총』, 동아일보사, 1969.
 123. 金容燮, “日帝強占期の 農業問題와 그 打開方案”,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2.
 124. 金點淑, 『美軍政期와 大韓民國 初期(1945~1950년) 物資需給政策』,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12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론 -』, 역사비평사, 1992.
 126.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127. _____,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128. _____,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29. 배영수, “노동과정론 - 테일러주의 논쟁 -”, 『省谷論叢』 23, 1992.
 130. 서중석, “한말·일제침략하의 자본주의 근대화론의 성격 - 도산 안창호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131. 송성수, “테일러리즘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기술의 위치”, 『한국과학사학회지』 16-1, 1994.
 132. 沈之淵, 『韓國現代政黨論』, 創作과批評社, 1984.
 133. 吳相洛, 『全訂版 마아케팅原論』, 博英社, 1980.
 134. 오진석,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의 성장과 변모 - 朴興植의 和信百貨店 경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

135. 王仁權, 「農村社會學概論」, 博英社, 1987.
136. 李秀日, “1920~1930年代 韓國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의 動向”, 「연세경제연구」 IV-2, 1997.
137. _____, “日帝強占·解放期 印貞植의 經濟思想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38. _____, “일제하 朴文圭의 現實認識과 經濟思想 研究”,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139. 이운상, “평안도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140. 임채승, “도산과 춘원의 민족개조론”, 「기러기」 164, 1979. 2.
141. 趙培原, 「修養同友會·同友會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142. 曹仲瑞, “沙川獨立萬歲事件의 真相”, 「地方行政」 10-2, 1961.
143. 許洙, “1945~46년 미군정의 생필품 統制政策”, 「韓國史論」 34, 1995.
144. 홍기현, “미국 한계주의자에 대한 연구-클라크와 피셔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창간호, 한국경제학사학회, 1998.
145. 洪東植 외, 「農村社會學」, 法文社, 1982.
146. 홍성찬, “한국 근현대 李順鐸의 政治經濟思想 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147. 반민족연구소 엮음, 「친일파99인(3)」, 돌베개, 1993.
148. 다니엘 렌(양창삼 옮김), 「現代經營學史 - 경영사상의 발전 - 」, 大英社, 1987.
149. 해리 브레이버맨(이한주·강남훈 옮김),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1987.
150. 古川榮一, 「アケリカ經營學」, 經林書房, 1959.
151. 鈴木榮太郎, 「農村社會學史」, 刀江書院, 1933.
152. 佐藤達夫·峯村光郎, 「國家總動員法/經濟統制法」, 三笠書房, 1939.
153. 河かおる,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同友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1998.